

## 대전지역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General Planning for Conservation and Managing  
Application of Cultural Heritage

정선기

정광용

윤 환

2008. 12



대전발전연구원

# 목 차

I. 연구배경	1
II. 연구방향	2
III. 연구내용	4
1. 대전광역시	4
2. 문화재분류	8
3. 문화재 보존방향	50
4. 문화재 활용방향	68
5. 문화재 홍보방향	79
IV.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86
V. 참고문헌	89

## I. 연구배경

문화재라 함은 조상의 슬기와 역사의 숨소리가 머물러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유일한 매체로 높은 가치의 산물이다. 더불어 문화재는 그 나라의 국가 이미지 내지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고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로 부상하고 있다. 즉, 문화재를 활용한 개발사업 및 관광사업이 점차 각광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 맞추어 함께 변화해야 할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발로 인한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의 갈등, 사유재산권 보장 요구 증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세계화·국제화의 진전 등 문화재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면서 정책수행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역사문화경관, 근대문화유산, 유네스코세계유산 등 문화재의 개념과 그 외연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이를 아우르는 보다 정교한 정책시스템이 시급한 실정이다.<sup>1)</sup>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에 의거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02~2011)」을 계획한 바로, 원형보존,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으로 3개의 대과제를 실행하였다. 이에, 좀 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문화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4대 핵심 대과제로 확충하여 실행하고 있다. 핵심4대 과제는 첫째, 핵심역량 강화, 둘째 합리적 보존, 셋째 협력적 관리 정착, 넷째 가치 활용 활성화 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전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2(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항에 의거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와 그 내용을 기초로,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조정하는 등의 방편이 필요하다.

대전시는 대전만의 문화를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기초방향 설정이 요구되기에, 본 연구에서 문화 보존·관리·활용의 기초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문화재청, 2007, 『문화유산 2011』, 문화재청

## II. 연구방향

문화재는 구시대적인 착오의 틀에 구애 받지 않고, 각 문화재의 환경 및 조건에 따른 보존·관리 및 활용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인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재의 지정별 분류는 물론 재질별 분류, 보존상태별 분류, 활용가능성 여부에 따른 분류 등으로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유형문화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분류 및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연구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정책 중장기 계획의 핵심4대과제 중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과 가치 활용 활성화라는 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림 3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문화유산

대전은 현재 과학의 도시, 군사의 도시, 제2의 행정 도시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으로 본 대전은 고도(부여, 공주, 익산, 경주)도시와 인접한 지리적인 강점을 가졌으며, 여러 시대의 문화유산을 분포하고 있는 강점을 가졌다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지 못하는 약점과, 고도도시와의 연계한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약점 있다.

문화재는 문화적 그 특성과 이미지는 바로 상품이 되고 경쟁력이 되며, 나아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문화의 힘은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있는 것으로 각 나라, 각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도적인 발 내딛음의 일환으로 대전시가 보유한 유·무형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홍보하기 위하여 장·단기 정책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통적 중심지역에 위치한 대전의 강점을 이용하여 대전의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홍보하여 지역의 문화적인 위치를 상승시키고자 한다.

### Ⅲ. 연구내용

#### 1. 대전광역시

##### 1) 개요

대전은 한반도의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은 소백산맥의 한줄기로 에워 쌓여 있고, 가운데가 넓은 평지를 이룬 침식분지이다. 대전의 남쪽은 만인산, 보문산, 구봉산으로, 동쪽은 식장산, 계족산으로 연결되어 대전의 동남쪽을 둘러싸고 있다. 서쪽은 빈계산에서 우산봉으로 연결되어 계룡산지가 나타나며 북쪽으로는 금병산지가 이어져 있다.

대전은 한적하고 넓은 벌판에 주로 농사를 지어 왔던 곳으로 약 백 여년 전까지만 해도 넓은 밭이란 뜻의 “한밭”이라 불려왔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방행정체제로 군현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회덕현(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일부), 진잠현(서구, 유성구 일부), 공주목(유성구, 동구, 서구, 중구 일부)으로 3등분하여 현, 군, 목 관할로 이루어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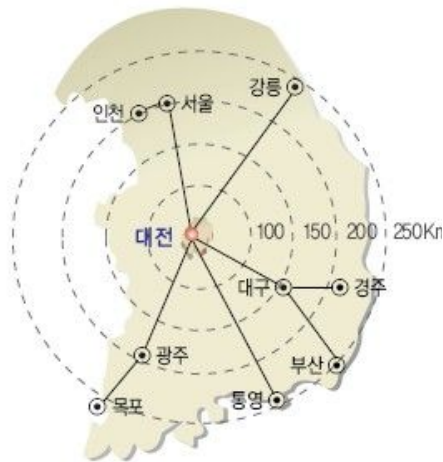


그림 2. 대전과 도시별 거리



그림 3. 대전지역 구획도

대전은 1935년에 대전부로 승격되고, 1949년에 대전시로 명칭을 전환함과 더불어 경부·호남 고속국도의 개통으로 많은 공장과 대덕연구단지 등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에 대전은 점차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개발하여 과학의 도시, 군사의 도시, 제2의 행정도시라는 칭송을 받게 되며,

거주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유동이 증가함으로 대전시의 문화발전에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대전은 자연과 기후가 큰 특성을 지니지 않고 내륙이 잘 발달된 분지로 형성되어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좋은 곳이다. 대전에 사람들이 정착한 흔적은 구석기 시대로부터 그 문화유적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크게 돋보이지 않으면서도 특성을 지닌 문화를 이어 왔다. 이러한 대전이 역사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것은 조선후기부터이다. 조선후기 대전지방은 기호학파의 중심세력이 하나의 독립된 호서학파를 형성하여 정치와 학문을 크게 주도하면서 조선후기 사회를 이끄는 중심이 되었다.<sup>2)</sup> 이에 본 연구에서 대전의 문화현황을 파악하며 문화발전방향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한다.

## 2) 역사적 고찰

따뜻한 기후와 살기 좋은 환경 덕에 대전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다간 흔적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유적으로 구즉동 구석기유적과 둔산동 신석기유적, 탄방동 청동기유적 등이 발굴된 바 있다. 역사시대로 들어와서는 마한을 거쳐 백제에 속하여 우술군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비풍군, 고려시대에는 회덕현과 진잠현으로 불렸고 조선후기에 이르러 회덕군·진잠군·공주군 일부가 합병돼 처음으로 현재의 대전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대한제국시대인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이래 1914년 호남선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신홍도시로 급부상하여 1949년 8월 15일 대전시로, 1989년에는 인구 100만 명을 수용하는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93년에는 엑스포가 개최되어 세계속의 대전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지난 1995년 광역시로 개칭되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년, 성종12)의 문헌을 살펴보면 ‘대전천은 유성동쪽 25리 지점에 있다<sup>3)</sup>’라고 언급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대전이란 지명은 500년전 조선초기에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송서속습유(宋書續拾遺)』 부록 권2 「초산일기(楚山日記)」에 ‘상여를 메는 인부들의 담당은 주산, 마산, 사현, 와지 등 4개 부락과 배달촌, 대전, 사오, 초동에서 사창계가 차출하여 3패로 나누어 번갈아 메고 동화동까지 갔는데 이덕원 등이 병풍과 차일을 넷가에 치고 기다리고 있기에 거리에 머물러 잠시 쉬었다<sup>4)</sup>’라고 언급된다. 이는 송시열이 정읍에서 사약을 받아 죽은 후, 그의 장례과정을 문인인 민진강이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대전」이란 지명은 대전천 근방의 조그만한 마을에서 출발한 것이다.<sup>5)</sup>

2)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지도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3) 大田川 佐儒城縣東二十五里 源出全羅道錦山郡地界

4) 擔夫則 自注山, 馬山, 沙峴, 瓦旨 四村及 白達村, 大田, 沙塢, 草洞 社倉契調出 分三運 替擔至東華洞 李德遠 等 設依帳於川邊以待之 停柩少憩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지금 대전지방의 리명칭으로 와지리 주산리 초동리 등등의 지명이 보이나 「대전」의 지명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전」은 자연부락의 명칭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sup>6)</sup>

서유구가 지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예규지」 권3, 팔역장시에 ‘대전장은 공주목 동쪽 70리에 있는 산내면의 대전에서 2일과 7일에 선다’<sup>7)</sup> 이 대전장은 지금 동구 인동의 재래 시장이었던 곳이다.

대전의 본래 우리말은 한밭으로 한밭이란 넓은 들판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로 이를 한자로 바꾸면 대전이 된다. 대전이란 지명이 행정단위의 지명인 대전리로 기록되는 것은 구한말 고종 32년(1895)에 지방 관제를 개정할 때 비로소 회덕군 산내면 대전리이다. 조선시대에 대전이라고 표기된 자연부락이 구한말 이후 행정구역인 리로 발전하여 점점 광역화된 지명으로 되었다. 대전이란 소지명은 일본의 강점기에 군·면폐합에 의하여 대전리가 대전면으로 1931년에는 대전읍으로, 1935년에는 대전부로 격상되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경부선철도가 부설된 때(1904)부터 강점할 때 (1910)까지 대전은 태전이란 지명으로 공존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1948년에는 대한민국의 대전시로, 1989년에는 대전직할시로, 1995년에는 대전광역시로 격상되었다.<sup>8)</sup>

### (1) 대전의 선사문화

대전지역에서 구석기유적이 발견된 곳들은 금강 상류의 지류인 갑천 유역으로 이들 구석기 유적의 발견·조사로 대전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대로까지 올라볼 수 있다. 대전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청동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사유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대전의 구석기 유적으로는 용산동, 용호동, 대정동 유적이 있고, 신석기유적으로는 둔산, 관평동, 송촌동 유적 등이 있다. 신석기시대의 관평동유적을 통해 생활의 터전이 해안이나 강가에서 내륙으로 확장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전지역에서도 신석기 시대부터 주민들이 촌락을 형성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외에도 갑천유역에는 여러 곳에서 빗살 무늬토기편들이 채집되고 있다.

그리고, 대전지역의 청동기 유적으로는 비래동, 둔산동, 용산동, 가오동, 노은동, 궁동, 괴정동, 탄방동, 원내동, 문화동 유적 등이며, 괴정동 유적에서는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단계의 한국식 청동단검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비래동 고인돌에서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바 있으며 문화동·탄방동에서 한국식 동검이 출토되어 수준 높은 청동기 문화를 이룩하였을

5)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지도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6)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지도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7) 設大田場 在州東七十里山內面 二七日

8)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지도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을 알 수 있다. 대전관내지역에서도 갑천변을 따라 무문토기가 산포된 곳이 여러 곳 밝혀져 있으며, 조사가 이루어진 원내동·비래동·사성동을 비롯하여 대정동·교정동·신대동 일대의 낮은 언덕에 고인돌이 흩어져 있어 앞으로 이들 유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청동기시대의 문화상이 보다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역의 철기문화유적은 오정동 및 구성동 유적에서 다수의 원삼국시대 움집터 등이 조사된 바 있으며, 대덕구 관내에서는 송촌동에서 토광묘들이 확인되고 있고 대화동에서도 토광묘 관계 유물들이 수습된 바 있다.

## **(2) 대전의 백제시대 문화**

백제는 북쪽에서 내려온 유이민들이 한강 유역의 위례성에 자리잡으면서 마한의 한 나라인 백제국에서 시작되었다. 대전지역은 BC 4~3세기 이래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상당수의 소국들을 성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청동기의 제작과 교역을 통하여 다수의 소국들을 통솔하는 정치 및 경제적 구심체가 대두되고 있었다. 대전 괴정동 및 비래동·아산 남성리·예산 동서리 등의 청동기 유적은 이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유적이라 생각된다. 정치 및 경제 백제는 주변의 여러 세력들을 통합하고 국가 제도를 정비하여 3세기 중엽 고이왕 때에는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에는 마한의 전 지역을 확보하여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대전지역도 이 시기에 백제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지역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동성왕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웅진 천도 후의 대전지역은 백제가 신라와 교류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요충지로, 당시에 백제의 수도 웅진성의 위성지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무렵 대전 지역은 백제의 동쪽에 위치한 금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데, 수도 웅진성을 방아하는데 군사적으로 중요하나 지역이었으므로 많은 산성들이 만들어졌다.

## **(3) 대전의 고려시대 문화**

고려시대의 대전은 공주에 소속되어 있었다. 즉, 회덕현, 진잠현, 유성현, 덕진현이 모두 공주의 속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 가운데 제8조에서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은 지형이 조성을 배반할 형태며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관리로 쓰리말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차현이남이란 지금의 공주, 논산 등 충남 남부지역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으로 전남지역은 제외된다.

## **(4) 대전의 조선시대 문화**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새 왕조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크게 고심하였다. 조선의 새 수도는 대전 근교의 계룡산 신도안과 지금의 서울이 후보에 올랐다. 조선시대의 대전지역은 충청도

공주목의 회덕현, 진잠현과 공주목에 흡수된 옛 덕진현, 유성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조선 초기 대전지역의 인구는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1760년대에 간행된 『여지도서』에는 23,557명으로 조선초기와 비교할 때 약 8배에 이른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조선초기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또한 이 지역은 의리를 지키고 예절이 바르며,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이름 높은 선비들이 많이 나온 곳으로 선비의 고장이라 할만하다.

### 3) 대전지역 문화재의 개발·발전 여건분석(SWOT)

#### (1) 강점(Strengths)

- ① 교통의 중심지로서 입지적 유리
- ② 다양한 문화자원 보유
- ③ 과학의도시, 군사의도시로 인지도가 높음
- ④ 첨단문화산업관련 창작소재 풍부

#### (2) 약점(Weaknesses)

- ①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도 저조
- ②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부족
- ③ 문화자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비(예산) 부족

#### (3) 기회(Opportunities)

- ① 첨단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및 R&D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용이
- ② 문화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자원 풍부
- ③ 교육적 열의가 높음

#### (4) 위협(Threats)

- ①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전지역 문화재의 열화속도 가속
- ②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휴식시설 제공 필요
- ③ 민속자료에 대한 무관심으로 전통자원 사장우려

## 2. 문화재 분류

### 1) 문화재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문화적 자산이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된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고리이자 미래를 열어주는 값진 자산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성격에 따른 유형화(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와 각 유형별 정의를 부여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1972년 총회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세계유산을 문화유산(인간에 의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자연유산(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하면서 인간의 얼과 삶의 양식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유산<sup>9)</sup>은 법률적 규제정도에 따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매장문화재로 구분되며, 행정상으로는 문화재의 성격별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문화재는 건조물과 같이 장소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동산 문화재와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등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로 구분된다. 동산문화재는 행정주체에 의한 지정여부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보물·사적·중요민속자료·천연기념물·명승·사적 및 명승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지정 지방유형문화재, 시·도 조례에 의해 향토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문화재자료,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일반동산문화재로 구분된다.<sup>10)</sup>



그림 4. 문화재 분류

9)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로, 문화유산현장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사용됨.

10)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2) 대전지역의 문화재

### (1) 유형문화재

#### ① 지정 분류

대전지역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4, 시지정문화재 91, 문화재자료 48, 등록문화재 14으로 총 157점이 있다.

구분 구별	계	국가지정	시 지정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계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동 구	42	1(보물)	24	6	4	14		12	5
중 구	35		19	6	6	7		12	4
서 구	13		7	3	0	4		6	0
유성구	25		15	2	2	11		5	5
대덕구	42	3(보물2, 사적1)	26	16	3	5	2	13	0
<b>계</b>	<b>157</b>	<b>4(보물3, 사적1)</b>	<b>91</b>	<b>33</b>	<b>15</b>	<b>41</b>	<b>2</b>	<b>48</b>	<b>14</b>

표 2 . 대전지역 지정문화재 수량조사

구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보물 및 사적	209	회덕 동춘당	대덕구 송촌동 192	건조	송준길
	1165	예념미타도량참법	대덕구 신탄진동 산 4-3	전적	
	1477-2	금관 조복본	동구 판암 2동 569-2	사화	채제공
	355	대덕 계족산성	대덕구 장동 산 85외 10필지	석성	삼국시대

표 3 . 대전지역의 국가지정문화재

구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유형 문화 재	1	송자대전판	동구 가양동	판각	송시열
	2	회덕 쌍청당	대덕구 중리동	건조물	송유
	3	회덕 동춘 선생 고택	대덕구 송촌동	건조물	송준길
	4	남간정사	동구 가양동	건조물	송시열
	5	석조보살입상	유성구 성북동	석조물	
	6	유회당(부)기공재	중구 무수동	건조물	권이진
	7	옥류각	대덕구 비래동	건조물	송준길
	8	송애당	대덕구 중리동	건조물	김경여
	9	제월당 및 옥오재	대덕구 읍내동	건조물	송규림 / 송상기
	10	고산사 대웅전	동구 대성동	건조물	도선국사
	11	초려이유태유고	대덕구 중리동	서적	이유태
	12	권준의 호구단자	대덕구 중리동	서적	권 준
	13	운부군옥	대덕구 중리동	서적	남수문
	14	윤돈등의동복화회입의	대덕구 중리동	서적	윤 돈
	15	조천진장	대덕구 중리동	서적	김상헌
	16	농암진적	대덕구 중리동	서적	김창협
	17	만회집 · 탄옹문집목판	서구 탄방동	목판	권득기 / 권시
	18	여경암, 거업재, 산신당	중구 무수동	건조물	권이진
	19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중구 석교동	석조물	
	20	유회당 판각	중구 무수동	목판	권이진
	21	상제집략판목	서구 흑석동	목판	권순경
	22	용천련고판목	서구 흑석동	목판	권순경 / 권흠
	23	금암집판목	중구 향토사료관	목판	송몽인
	24	은진송씨 정려각	대덕구 범동	건조물	김경여
	25	고홍류씨 정려각 및 비	대덕구 중리동	건조 및 석조물	송극기
	26	용화사 석불입상	대덕구 읍내동	석조물	
	27	설고시첩	대덕구 중리동	전적	김상헌
	28	수운교천단	유성구 추목동	건조물	최제우
	29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중구 무수동	건조물	권이진
	30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대덕구 비래동	불상	
	31	심광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동구 천동	불상	
	32	고산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동구 대성동	불상	
	33	고산사 아미타불화	동구 대성동	탱화	

표 4 . 대전지역의 유형문화재-1

구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문 화 재 자 료	1	삼매당	동구 가양동	건조물	박계립
	2	창계승절사	중구 안영동	건조물	박팽년 / 박심문
	3	도산서원	서구 탄방동	건조물	권득기 / 권시
	4	문충사	동구 용운동	건조물	송병선 / 송병순
	5	회덕향교 대성전	대덕구 읍내동	건조물	4성10현 / 18현
	6	진잠향교 대성전	유성구 교촌동	건조물	4성10현 / 18현
	7	김반 · 김익겸의 묘	유성구 전민동	묘	김반 / 김익겸
	8	박팽년 선생 유허비	동구 가양동	비석	박팽년
	9	취백정	대덕구 미호동	건조물	송규렴
	10	보문사지 석조	중구 무수동	석조물	고려
	11	중암사 부도	중구 정생동	석조물	조선
	12	수운교 석종	유성구 추목동	석조물	최제우
	13	송준길의 묘	서구 원정동	묘	송준길
	14	김여온의 묘	서구 괴곡동	묘	김여온
	15	유희당 유물	중구 무수동	전적	권이진
	16	동국사략	대덕구 중리동	전적	조선태종
	17	삼강행실도	대덕구 중리동	전적	조선성종
	18	청구풍아	대덕구 중리동	전적	김종직
	19	양성당제역	대덕구 중리동	전적	김비
	20	문정공왕고간독	대덕구 중리동	전적	김상헌 / 김광찬
	21	화산세가필적	대덕구 중리동	전적	안동김씨 / 명현
	22	박인년 교지	대덕구 중리동	전적	박인년
	23	김정 선생 묘소 일원	동구 신하동	묘	김정
	24	태실(석함)	향토사료관	석조	선조의 자 경평군
	25	어사 홍원모 영세불망비	대덕구 읍내동	석조	홍원모
	26	유혁연의 묘	서구 평촌동	묘	유혁연
	27	기성관	유성구 원내동	건조물	진잠관아
	28	수정재	서구 변동	건조물	손석(화숙)
	29	월송재	동구 이사동	건조물	송회건
	30	칠성당 지석묘군	유성구 교촌동	묘	선사시대

표 5 . 대전지역의 문화재자료-2

구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문 화 재 자 료	31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	동구 이사동	건조물	송국보
	32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	서구 괴곡동	건조물	윤섬
	33	봉소루	중구 석교동	건조물	남분봉
	34	이시직공 정려각	대덕구 송촌동	건조물	이시직
	35	관동묘려	동구 마산동	건조물	유씨부인
	36	국사봉 유적	중구 무수동	사적	
	37	송자 고택	동구 소재동	건조물	송시열
	38	갑진북정록	대덕구 중리동	전적	김수향
	39	독립지사 김태원 생가 유허	동구 홍도동	사적	김태원
	40	박원상의 묘	동구 대별동	묘	박원상
	41	송씨 양세정려	중구 대사동	판각	송두원
	42	오정동 선교사촌	대덕구 오정동	건조물	인돈
	43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중구 목동	건조물	
	44	대전여중 강당	중구 대흥동	건조물	
	45	구 대전형무소 망루	중구 목동	건조물	
	46	서포 김만중 영정	동구 중동	회화	김만중
	47	충청남도지사 공관	중구 대흥동	건조물	
	48	삼성초등학교 구교사	동구 삼성동	건조물	

표 6 . 대전지역의 문화재자료

구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등 록 문 화 재	18	충청남도청	중구 선화동	건조물	
	19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	동구 중동	건조물	
	20	조흥은행 대전지점	동구 원동	건조물	
	98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동구 인동	건조물	
	99	한전 대전보급고	동구 인동	건조물	
	1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중구 은행동	건조물	
	101	충청남도 관사촌(50년 이상 경과된 건물)	중구 대흥동	건조물	
	168	철도청 대전지역 사무소 재무과 보급 창고(3호)	동구 소재동	건조물	
	169	대전 선화동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 사택	중구 선화동	건조물	
	331	대전 수운교 봉령각	유성구 추목동	건조물	
	332	대전 수운교 용호당	유성구 추목동	건조물	
	333	대전 수운교 본부 법회당	유성구 추목동	건조물	
	334	대전 수운교 본부 사무실	유성구 추목동	건조물	
	335	대전 수운교 종각 및 범종	유성구 추목동	건조물	

표 7 . 대전지역의 등록문화재

## ② 재질별 분류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에서 하나가 문화재를 재료와 성분에 따라 분류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법에 따르면, 금속제품, 옥돌제품, 토제제품, 골각제품, 목재제품, 피혁·직물제품, 서화·서적, 건조물, 고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1)</sup> 대전의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크게 건조물(목재), 석조물(석재), 지류 등의 재질로 나눌 수 있다.

## ㉠ 지류문화재 손상사례

11) 김창규, 2005 『문화재보호법개론』, 동방문화사





그림 5. 조선왕조실록 화학적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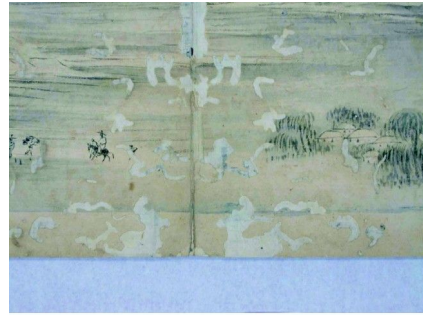


그림 6. 생물학적 손상



그림 7. 딱정벌레 성충이 만든 출입공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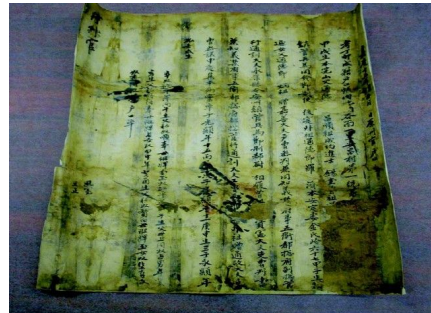


그림 8. 인위적 손상



그림 9. 생물학적 손상



그림 10. 얼룩에 의한 손상



그림 11. 구김에 의한 손상



그림 12. 구김, 생물학적 열화

구분	문 화 재 명	유형	비고 (관련인물)
1	예념미타도량참법	전적	
2	금관 조복본	사화	체제공
3	초려이유태유고	서적	이유태
4	권준의 호구단자	서적	권 준
5	운부군옥	서적	남수문
6	운돈등의동북화회입의	서적	운 돈
7	조천진장	서적	김상헌
8	농암진적	서적	김창협
9	설고시첩	전적	김상헌
10	고산사 아미타불화	탱화	
11	유회당 유물	전적	권이진
12	동국사략	전적	조선태종
13	삼강행실도	전적	조선성종
14	청구풍아	전적	김종직
15	양성당제역	전적	김비
16	문정공왕고간독	전적	김상헌 / 김광찬
17	화산세가필적	전적	안동김씨 / 명현
18	박인년 교지	전적	박인년
19	갑진북정록	전적	김수향
20	서포 김만중 영정	회화	김만중

표 7 . 대전지역의 지류문화재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문화재 중 지류문화재는 국보 78건, 보물 509건으로 전체에서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의 대부분은 소장처에 보관되거나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되고 있다. 그러나 취급부주의 및 보존환경의 열악함 그리고 자연적인 손상에 의해 지류유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지류문화재는 20점으로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보존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종이의 손상은 환경과 유물 자체의 화학적 안정성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관계에서 보존환경은 손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자로서 또한 중지시킬 수 있는 억제자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손상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악환경에 노출된 종이는 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종이 자체의 화학적 성분에 변화가 발생한다. 환경조건, 노출정도, 유물의 화학적 안정성은 유물의 손상정도와 속도를 결정한다. 반대로 최적의 보존환경은 종이의 보존에 매우 유익할 뿐 아

나라 유물의 내구성을 크게 증진시킨다.

더구나 지류문화재는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㉞ 목재문화재 손상사례



그림 13. 창경궁 집복헌 안마당. 배수불량



그림 14. 해인사대장경판. 먼지고착



그림 15. 여수 진남관. 기둥의 충해



그림 16. 흰개미에 의하여 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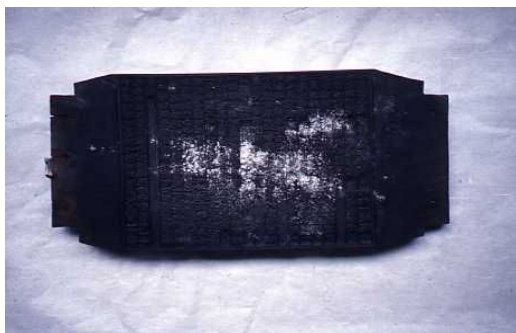


그림 17. 대장경판. 곰팡이가 발생



그림 18. 흥인지문. 조류 배설물에 의한 오염

구분	문 화 재 명	유형	비고 (관련인물)
1	회덕 동춘당	건조	송준길
2	송자대전판	판각	송시열
3	회덕 쌍청당	건조물	송유
4	회덕 동춘 선생 고택	건조물	송준길
5	남간정사	건조물	송시열
6	유회당(부)기공재	건조물	권이진
7	옥류각	건조물	송준길
8	송애당	건조물	김경여
9	제월당 및 옥오재	건조물	송규립 / 송상기
10	고산사 대웅전	건조물	도선국사
11	만회집 · 탄옹문집목판	목판	권득기 / 권시
12	여경암, 거업재, 산신당	건조물	권이진
13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석조물	
14	유회당 판각	목판	권이진
15	상제집략판목	목판	권순경
16	용천련고판목	목판	권순경 / 권흡
17	금암집판목	목판	송몽인
18	은진송씨 정려각	건조물	김경여
19	고흥류씨 정려각 및 비	건조 및 석조물	송극기
20	수운교천단	건조물	최계우
21	안동권씨 유회당 종가	건조물	권이진
22	송용역 가옥	건조물	
23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불상	
24	심광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불상	
25	고산사 목조석가모니불좌상	불상	
26	삼매당	건조물	박계립
27	창계송절사	건조물	박팽년 / 박심문

표 8 . 대전지역의 목조문화재

구분	문 화 재 명	유형	비고 (관련인물)
28	도산서원	건조물	권득기 / 권시
29	문충사	건조물	송병선 / 송병순
30	회덕향교 대성전	건조물	4성10현 / 18현
31	진잠향교 대성전	건조물	4성10현 / 18현
32	취백정	건조물	송규립
33	기성관	건조물	진잠관아
34	수정재	건조물	손석(화숙)
35	월송재	건조물	송희건
36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	건조물	송국보
37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	건조물	윤섬
38	봉소루	건조물	남분봉
39	이시직공 정려각	건조물	이시직
40	관동묘려	건조물	유씨부인
41	송자 고택	건조물	송시열
42	송씨 양세정려	판각	송두원
43	오정동 선교사촌	건조물	인돈
44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건조물	
45	대전여중 강당	건조물	
46	구 대전형무소 망루	건조물	
47	충청남도지사 공관	건조물	
48	삼성초등학교 구교사	건조물	
49	충청남도청	건조물	
50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	건조물	
51	조흥은행 대전지점	건조물	
52	구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건조물	
53	한전 대전보급고	건조물	
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건조물	
55	충청남도 관사촌(50년 이상 경과된 건물)	건조물	
56	철도청 대전지역 사무소 재무과 보급 창고 (3호)	건조물	

표 9 . 대전지역의 목조문화재

구분	문 화 재 명	유형	비고 (관련인물)
57	대전 선화동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 사택	건조물	
58	대전 수운교 봉령각	건조물	
59	대전 수운교 용호당	건조물	
60	대전 수운교 본부 범회당	건조물	
61	대전 수운교 본부 사무실	건조물	
62	대전 수운교 종각 및 범종	건조물	

표 10 . 대전지역의 목조문화재

㉔ 석조문화재 손상사례



그림 19. 분황사 모전석탑. 표면 백화 현상



그림 20. 진남관비석 동결융해 현상



그림 21. 현일동 3층 석탑. 배수가 불량하여 이끼류 발생



그림 22. 덕산 마애불. 석재의 풍화와 미생물로 인한 표면 오염 손상



그림 23. 양골와트유적 거대 용수 뿌리로 인한 석조문화재 손상



그림 24. 현일동 3층 석탑. 배수 불량으로 인해 지의류 자생

구분	문 화 재 명	유형	비고 (관련인물)
1	대덕 계족산성	석성	삼국시대
2	석조보살입상	석조물	
3	유회당(부)기공재	건조물	권이진
4	옥류각	건조물	송준길
5	송애당	건조물	김경여
6	제월당 및 옥오재	건조물	송규립 / 송상기
7	고산사 대웅전	건조물	도선국사
8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석조물	
9	고흥류씨 정려각 및 비	건조 및 석조물	송극기
10	용화사 석불입상	석조물	
11	법동 석장승	석조물	
12	박팽년 선생 유허비	비석	박팽년
13	보문사지 석조	석조물	고려
14	중암사 부도	석조물	조선
15	수운교 석종	석조물	최계우
16	태실(석함)	석조	선조의 자 경평군
17	어사 홍원모 영세불망비	석조	홍원모
18	석조보살입상	석조물	

표 11 . 대전지역의 석조문화재

인류의 최초 인류가 살기 시작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생활도구는 돌로 만들어 졌으며, 후생에서도 돌을 이용한 도구, 기원을 담은 석상, 석탑, 부도 등 여러 유물들이 돌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들은 과거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란이나 산불,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이 소실되기도 하였다. 또 근대에는 일제침략, 6·25전쟁 등을 겪으면서 많은 문화재들이 훼손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많은 문화재들이 역사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특히 민감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류, 섬유, 목재류 등은 훼손이 쉽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석조유물은 석재의 특징인 내구성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옛 현상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어왔고, 장구한 세월에 비해 훼손으로 인한 변화 정도가 쉽게 파악되지 않아 다른 재질의 유물들에 비해 보존에 대한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야외의 노출된 환경에 있는 석조유물들은 이미 오랫동안이나 자연풍화를 겪으면서 재질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오늘날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석재의 특성변화, 풍화, 침식 등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외에 위치

한 환경적 이유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한 도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석조유물에 보다 많은 보존관리가 요구되고 있다.<sup>12)</sup> 대전지역의 지정문화재 중 석조문화재는 18점이 있다. 하지만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전에는 여러 산성들이 있다. 이 또한 석조문화재로 그 역할을 당당히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보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2) 무형문화재

구분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무형 문화 재	1	웃다리 농악	중구 대흥동	칠채가락	류창열/보존회
	2	대전의 앉은곳	중구 문창1동	안택곳 외/설경	신석봉/송선자
	3	유천동 산신제	중구 유천동	산신제	유천동 산신제보존회
	4	장동 산디마을탐제	대덕구 장동	탐제	장동산디마을탐제보존회
	5	불상 조각장	유성구 탑립동	불상조각	이진형
	6	소목장	중구 어남동	소목	방대근
	7	매사냥	동구 삼괴동	사냥	박용순
	8	송손주	대덕구 송촌동	술제조	윤자덕
	9	연안이씨 가각색편	중구 유천동	떡제조	이만희
	10	단청장	중구 오류동	단청	이정오
	11	악기장	유성구 원촌동	북매우기	김관식
	12	들말 두레소리	대덕구 목상동	소리/선소리	보존회/고석근
	13	가곡	동구 가양동	여창가곡	한자이
	14	승무	동구 구도동	승무	송재섭
	15	초고장	동구 낭월동	초고장	양중규

표 12 . 대전지역의 무형문화재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지정하면서 시작된 무형문화재 제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는 109종목이 지정되고 210여 명에 달하는 보유자가 인정되는 외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승되어 우리민족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무형문화재는 이제 기·예능 보유자와 전승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나서서 전승·발 전시켜야 할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이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물학

12)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적·회화적인 손상은 없다. 하지만, 무형문화재의 가장 큰 손상원인은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이 손상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야 하면, 무형문화재의 전승·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 (3) 기념물

구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기 념 물	1	박팽년 선생 유허	동구 가양2동	사적	
	2	내동리 지식묘	유성구 원내동	묘	
	3	보문사지	중구 무수동	사적	
	4	김익희의 묘	유성구 가정동	묘	
	5	구성동 산성	유성구 구성동	토성	
	6	월평동 산성	서구 월평동	석성	
	7	질현성	대덕구 비래동	석성	
	8	우술성	대덕구 읍내동	석성	
	9	보문산성	중구 대사동	석성	
	10	능성	동구 가양동	석성	
	11	갈현성	동구 용운동	석성	
	12	적오산성	유성구 덕진동	석성	
	13	사정성	중구 사정동	석성	
	14	흑석동 산성	서구 봉곡동	석성	
	15	안산동 산성	유성구 안산동	석성	
	16	삼정동 산성	동구 판암동	석성	
	17	성북동 산성	유성구 성북동	석성	
	18	노고산성	동구 직동	석성	
	19	견두산성	동구 효평동	석성	
	20	고봉산성	동구 주산동	석성	
	21	백골산성	동구 신하동	석성	
	22	소문산성	유성구 신동	석성	

표 13 . 대전지역의 기념물

구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기 념 물	23	계현산성	동구 삼괴동	석성	
	24	비파산성	동구 이사동	석성	
	25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중구 어남동	사적	
	26	송현 서원지	유성구 원촌동	사적	
	27	둔산 선사 유적	서구 월평동	석성	
	28	성치산성	동구 직동	석성	
	29	마산동 산성	동구 마산동	석성	
	30	이현동 산성	대덕구 이현동	석성	
	31	신선봉유적	동구 비룡동	석성	
	32	비래동 고인돌	대덕구 비래동	사적	
	33	구완동 청자 가마터	중구 구완동	사적	
	34	구완동 상감청자 가마터	중구 구완동	사적	
	35	정생동 백자 가마터	중구 정생동	사적	
	36	구성동 유적	유성구 구성동	사적	
	37	노은동 유적	유성구 노은동	사적	
	38	궁동 유적	유성구 궁동	사적	
	39	장안동 백자 가마터	서구 장안동	사적	
40	미륵원지	동구 마산동	사적		
41	용호동 유적	대덕구 용호동	사적		

표 14 대전지역의 기념물

#### (4) 민속자료

구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민속 자료	1	범동 석장승	대덕구 범동	석조물	
	2	송용억 가옥	대덕구 송촌동	건조물	

표 15 . 대전지역의 민속자료

##### ① 민속신앙

마을 공동신앙은 인간이 일정한 주거공간을 형성하게 되면서 주민 모두의 신앙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된 민간신앙이다. 신앙은 그 목표와 행위가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산간지역은 산신과 산제에 대한 존엄성이 높게 유지되고, 강촌지역은 우물제가 중요시된다. 즉 이런 민속신앙은 그 마을의 환경적·역사적·문화적 상황과 긴밀한 연관이 있어, 그 지역적 특성을 밝히는데 큰 의의가 있는 자료이다.

근래에 도시화 추세가 강하게 전개된 대전광역시외의 마을 공동신앙은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 결과 현재 도심에 가까운 곳일수록 이런 공동신앙이 빠른 속도로 전승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미 오래전에 상실된 곳도 많다. 인구 감소, 도시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한 전통적 마을 개념이 약화되는 추세에 따라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민속신앙이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후대에게 전달될 수는 있도록 학술적 자료로 구축 및 행사로 특성화하여 대중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지역	민속문화	설명	비고
동구	<p><b>비룡동의 장승제*</b>  <b>추동큰말의 산신제, 거리제**</b></p> <p>추동 상추의 산신제            마산동 말미의 거리제            효평동 거리제            직동의 거리제            사성동의 산신제            신상동 홍지의 거리제            신상동 오리골의 거리제</p>	<p>*비룡동이라는 마을에서 매년 음력 1월 14일 자정 곧 15일 첫 새벽에 거리제를 지낸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제의를 거리제라고도 하고 장승제라고도 하는데 후자를 많이 사용한다. 대상 신체는 마을 초입의 대로 양 옆에 위치한 남녀 석장승이 있는데 이 석장승 속에 깃는 노신을 대상으로 제가 올려지고 있다. 이 장승제의 특징은 다른 마을과는 달리 한글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사람들은 장승제를 통하여 마을이 태평하고 각 가정이 대길하기를 염원한다.</p> <p>**추동 가운데 가장 큰 마을인 가래울에서 열리는 산신제 및 거리제는 지금은 대청댐의 완공과 더불어 이지문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그 규모가 다소 위축되었다. 산신제는 매년 정월 달에 날을 보아 길한 날에 올리는 것으로 거리제를 지내는 날과 겹치기 않게 한다. 가래울의 산제 유래는 그 시초를 알 수 없을 만큼 상당이 오래된 제의로서, 마을의 안과 태평을 기원한 뒤에는 개별 소지를 올려 마을 주민들의 운수대통을 염원한다.</p>	

표 16. 대전지역 민속문화(동구)

지역	민속문화	설명	비고
중구	정생동 정승골의 거리제 정생동 탑적골의 산신제 사정동 윗사정의 장승제 원사정의 거리제 침산동 점말의 거리제 침산동 방아미의 산신제 구완동 완전의 산신제 목달동 송절의 거리제 목달동 남달미의 산신제 무수동 무쇠골의 산신제 <b>유천동 버드내의 산신제*</b> 금동의 산신제, 거리제 어남동 느리미의 산신제	*마을 신앙 중 대표적인 산신제는 산신령에게 지내는 제사로 시도무형문화재 제 4호 유천동 산신제는 매년 음력 동짓달에 마을사람들의 나쁜 기운을 막고, 평화와 번영을 축원하는 제사의 하나이다. 유천동 산신제의 역사는 정확하지 않으나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약 450년 전부터 지내왔다고 한다. 본 제의는 산제당보존회를 만들어 이 회를 중심으로 전승·보존하고 있다.	

표 17. 대전지역 민속문화(중구)

지역	민속문화	설명	비고
유성구	금고동 안골의 썸제 금고동 밤골의 썸제, 거리제 금고동 원금고의 썸제 금고동 작골의 썸제, 거리제 금고 2동 산자뜸의 산제 봉산동의 목신제와 거리제 덕진동의 산제, 거리제 하기동 윗덧골의 썸고사 죽동 16통, 대울의 거리제 탄동 반석1통 양짓말의 장승제 <b>외삼동의 산제, 칠성제, 거리제*</b> 안산동 어득운리의 거리제 덕명 2통 화산리의 산제 상대 2통 원골의 거리제 신흥 2통의 거리제 교촌 3통 칠성당의 용왕제와 칠성제 성북동 1통 새뜸, 신평의 산신제 성북동 2통 윗자뜸의 거리제 세동 상시도의 산신제, 거리제 어은동 은골의 거리제	*외삼동 산제와 칠성당제, 거리제의 유래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전한다. 현재 이 마을에 생존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마을 제의가 이루어져왔다고 한다. 제를 올리는 목적은 마을의 안위를 위해서이다. 먼저 산제에서는 마을의 무사태평과 남녀노소 마을 사람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아울러 그해의 결실에 대한 감사와 새해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기도 한다. 칠성당제는 칠성을 위하고 아울러 마을 주민의 소원성취를 빈다.	

표 18. 대전지역 민속문화(유성구)

지역	민속문화	설명	비고
대덕구	<p>연축동 축골의 산신제  <u>와동 남월리의 산신제*</u>  장동 진골, 요골, 터골, 새골의 장승제  <u>장동 산디 산신제, 탐제**</u>  삼정동 강촌·이촌 산신제  갈전동 갈밭 거리제  이현동 심곡탐제  이현동 배고개 수구제  장동 새뜸 샘고사  장동 진골 산신제  대화동 구만이 샘고사  문평동 들말 산제  미호동 산신제  범동 산신제, 거리제, 방죽제  <u>비래동 대양리 산신제, 거리제***</u>  비래동 비래골 산신제, 거리제  상서동 산막 거리제  석봉동 용정리 거리제  송촌동 거리제  신일동 을미기 탐제  오정동 오물 거리제  용호동 상용호 탐제  용호동 하산디 탐제  읍내동 뒷골 산신제, 거리제  읍내동 당아래 장승제  읍내동 효자골 거리제</p>	<p>*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에서는 해마다 음력 시월 초순에 좋은 날을 잡아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고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 당일이 어두워지면 제관 일행은 제당으로 향한다. 본래는 제관과 축관이외의 다른 사람은 함께 갈 수 없었으나, 최근에는 마을사람들이 함께 가기도 한다. 제의는 자정을 기해 올리는데, 제의 순서는 집에서 지내는 기제사와 비슷하다. 주민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빌고 가축의 번성도 기원한다. 예전에는 마을이 산기슭에 위치한 탓에 산짐승의 피해를 자주 입었으므로,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기도 했다고 한다.</p> <p>**시도무형문화재 제5호 산디마을 탐제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마을의 대동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민간토속신앙의 하나이다. 음력 1월 14일이면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서 부정한 것을 막는다. 저녁이 되면 풍물을 치며 농기를 모시고 풍년을 기원하는 농신제와 용왕제를 지낸다.</p> <p>***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대양리(맹이)에 전승되는 서낭굿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로 들어오는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해 해마다 음력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마을 선들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원래 산신제와 함께 지냈으나 마을 주민이 줄어들면서 거리제만 지내고 있다. 거리제를 지낼 때는 소지를 올리지 않았으나 산신제가 없어지면서 거리제에서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대동 소지, 개별 소지를 올린 뒤 외지에 나가 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별도로 소지를 올려준다.</p>	

표 19. 대전지역 민속문화(대덕구)

지역	민속문화	설명	비고
서구	<p><b>구봉산 산신제*</b>            장안동의 거리제            산직동 용태울의 산신제            산직동 비선말의 산신제            매노동 원매노리의 산신제            우명 샷골 산제            오동의 산신제            원정도 발현리의 산신제, 거리제            봉곡동 안세점의 산신제            봉곡동 바깥세점의 산신제, 거리제            도안동 2통 가둔리 거리제</p>	<p>*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일대에 전승되는 서낭곳으로 예로부터 개인이나 마을 단위로 산신제를 올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산신제가 중단되었는지 알 수 없다. 1993년도에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가수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구봉풍물연구회'가 창단되면서부터 해마다 정월 열나흘날에 구봉산 신선봉 아래에서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올리고 있다. 산신제가 끝나면 가수원 삼거리를 향해 흥겹고 신명나는 길놀이 하고 삼거리에 모여 지역주민과 행사 주관자들이 거리제를 지내고 모든 주민의 마음을 엮어 한 몸이 되어 모든일이 만사형통하도록 흥겨운 뒤풀이와 민속놀이가 행하고 있다.</p>	

표 20. 대전지역 민속문화(서구)

## ② 민속음악

민속음악은 민중들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아래에서 향유하며 전승시킨 음악을 말한다. 그 예로 판소리·민요·무악·풍물 등이 있다.

### ○ 여창가곡

시도무형문화재 제14호 한자이씨는 1988년 중요무형문화재 여창가곡 보유자 월하 김덕순에게 입문하여 예능을 전수받았다. 그후 1992년부터는 남창가곡의 보유자인 김경배에게서 남창가곡을 사사받고, 내포제 시조의 명창인 소동규, 김규열, 박기욱에게서는 향제시조를 배워 시조창과 가사창 분야를 섭렵하였다. 1992년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 특부 금상과 1993년 전주대사습놀이 시조부 장원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물레돌리는 노래, 그네타령, 시집살이, 앞동상, 명사십리해당화, 아오라 지뻐사공, 인생타령, 혼인가, 밤따는 처녀, 첩타령, 이별한탄가, 높은산에 눈날리듯, 베틀가, 낙화지면, 장타령, 등이 있다.

## ③ 민속미술

민속미술이란 한 민족이나 개인이 생활 습속에 따라 만들어 오며 즐긴 미술을 가리키는데, 민화·무신도·춘화 등 다양한 여러 갈래를 포괄한다.

시도무형문화재 제11호 단청장 이정오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단청계 최대 계파의 수장인 고 일섭스님(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게서 전통단청 기능을 전수받아 1974년 지정문화재 수리기술자(단청기술자)선발 시험에 최연소(만 26세)로 합격되었다. 이후 전통문양 및 기법 계승과 더불어 스승인 일섭스님의 특장인 금문양 및 주위문양의 발전에 힘썼다. 또한 중국 건축의장의 지침서격인 「이명중 영조법식(李明仲 營造法式)」의 '채화작도(彩畵作度) 문양'을 참고한 신문양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남다른 기능을 지녔다. 작품으로 합천 해인사 대웅전·온양 현충사 현충각·대구 영남루·직지사 대웅전·대전 덕수암 대웅전 등이 있다.

#### ④ 민속무용(승무)

대전 출생으로 1974년 불가에 입문한 시도무형문화재 제15호 송재섭씨는 조계종 스님으로부터 작법과 범패를 배우기 시작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영산재 보유자인 박송암스님에게서 바라춤, 법고무 등 불교의식과 의식무를 사사받았다. 이후 이매방으로부터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춤, 영산재보존회로부터 영산재를 각각 이수 받았다.

송재섭의 춤은 매우 여성적이나 약하지 않고, 섬세하나 큰 결이 있으며, 결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함이 깃들여 있다. 발끝에서 손끝까지 잔잔한 생명력이 있는 움직임이 표출되는 춤사위를 통해 한과 숙명을 풀어내고 있다. 그 몸짓은 억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감정으로 내면에서 희열을 끄집어내고 있으며 결코 경직되지 않는 모습의 춤사위를 펼쳐 보인다. 잔잔한 호수에 동심원을 그리며 물살이 퍼져 나가는 듯한 애잔한 느낌을 준다. 구도의 정신에서 묻어 나오는 그만의 춤 세계와 겸허한 마음자세가 숙명적으로 춤을 추기 위해 태어난 자의 몸부림이라 표현할 만 하다.

#### ⑤ 민속공예

공예는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는 말이나 대개 만들어진 물건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 불상 조각장

대전시에 사는 불상조각 기능보유자인 시도무형문화재 제6호 이진형씨는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사찰의 불상을 조각하는 일에 참여하였고, 불교조각의 형태, 비례, 색채 등 조각기능을 전수·연마함으로써 전문적인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활동과 더불어 기능전수를 목적으로 불교조각원에 전념하고 있다.

#### ㉞ 소목장

목가구는 꾸준한 수요가 있던 일상생활용품이므로 특정한 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생산되었다. 한국은 앞서 생활하는 온돌방구조이므로 천장이 낮고 실내도 비교적 좁다. 따라서 시각적 부담을 줄이고 넓은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고 간결한 실용적인 가구를 정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규격이 크고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중국의 가구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떡감나무, 느티나무, 돌배나무, 오동나무, 참죽 등을 4~5년간 자연 건조시켜 사용하는데, 전통연장을 사용하여 장부촉짜임, 사개짜임, 숨은 연귀촉짜임 등 특징을 살린 전통가구를 제작하고 있다. 소목장은 전통적인 공예기술로 방대근 씨가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 ㉟ 악기장

시도무형문화재 제12호 김관식씨는 충남 논산시 채운면에서 30여 년 간 북을 제작해온 할아버지와 대전으로 옮겨 50여 년 간 북을 제작한 아버지를 이어 3대째 북메우는 일을 하고 있다. 그는 북소리를 좌우하는 가족의 선별과 가족 처리 및 통제 작 등 재래식 방법에 의한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품과 상품을 구분 제작하는 능력을 지닌 장인이다. 주제작 품목은 줄북(썰기북), 고장북(시조, 판소리용), 밀양북(무속인용)등이지만 다른 종류의 다양한 북도 제작할 수 있다. 1989년 서울 올림픽대회 개회식에 사용한 용고와 청와대 춘추관 고각의 용고 등은 그가 제작한 북이다.

#### ⑥ 민속놀이

##### ㉠ 부사칠석놀이

부사동은 대전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전승되는 부사칠석놀이는 백제시대 두 연인의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부사 칠석놀이의 첫번째 과정은 선바위 치성이다. 곧 칠석날 아침에 상·하부사리 아낙들이 백설기, 과일 등 정성껏 마련한 제수음식을 가지고 선바위에 나가 치성을 올린다. 아낙들은 먼저 손빔을 하고 부용신을 위한 소지를 올린다. 각 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소망을 소지를 통해 기원하기도 한다. 본격적인 칠석놀이는 오전 11시의 길놀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양 마을에서 징을 길게 울려 길놀이에 들어간다. 각각의 마을에서 풍장을 치며(길꼬네비 가락) 마을기, 용기, 영기, 나팔수, 풍물패, 좌상, 마을 사람 순으로 두 마을이 합쳐지는 지점을 향하여 행군한다. 길놀이 행진은 두 마을의 중간 지점까지 이어지고 두 마을의 길놀이패가 한 곳에서 만나면 각 마을의 좌상이 나와 인사를 하고 놀이의 진행에 관한 숙의를 한다. 이어 좌상끼리의 인사



가 끝나면 기세배를 한다. 두 마을의 용기가 나와 인사곳에 맞추어 세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흥겹게 춤을 추고는 두 마을이 하나가 되어 부사샘으로 향한다. 샘 앞에 집결하면 우물 앞에 제물 진설을 한 뒤,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나와 재배를 하고 샘푸기를 합니다. 샘가의 사람들은 풍장에 맞추어 「샘치기 노래」를 하며 춤을 추고 고사를 지낸 후 사람들은 양편으로 갈라서서 부용사득 합궁놀이를 준비한다.

아낙들은 오작교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서로 뭉치어 부용과 사득의 영혼을 부르며 길을 뚫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으로 가 상대 마을 사람들과 어우러진다. 이어 부용과 사득의 사랑노래를 부르며 두 영혼의 영혼 혼례를 올려줍니다. 혼례가 끝나면 부용은 마을 아낙들에게, 사득은 마을 남정네들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축하하고, 한편으로는 마을이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뒷풀이라 할 놀이마당이 펼쳐집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두 영혼의 원만한 결혼을 축하하며 흥을 돋웁니다. 또 부용과 사득은 만남의 기쁨에 겨워 끊임없이 사랑춤을 춥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려 놀이판이 계속됩니다. 풍물패의 가락에 맞추어 아이들을 무동 태웁니다. 이렇게 한바탕의 뒷풀이가 마감되면 칠석놀이의 대미가 마무리됩니다.

한편 부사칠석놀이는 제35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 문창동옛장수놀이

문창동 옛장수 놀이는 조선 중엽 서정말(西町) 남쪽에 살던 황씨와 북쪽에 살던 김씨의 옛도가 경영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정월 초사흘날에 옛장수들은 제주를 선정하고 제사일이 다가오면 양쪽집의 제주가 모여 거리제의 제반 집행에 대해 상의하고 준비를 한다.

놀이의 첫번째 단계인 길놀이에 이어 거리제를 올린다. 옛장수들은 사거리 중앙에 돛자리를 펴고 제상을 놓은 뒤 제물을 진설하고 유교식 기제사형식으로 진행된다. 거리제가 끝나면 헌식이라하여 제물을 제장 주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음복이 행해집니다. 제를 지낸 후, 줄다리가 행해진다. 이 줄다리기에서 이기면 이긴 편의 옛은 일년 동안 잘 팔리고 진 편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경기가 끝나면 뒷풀이가 이어진다. 좌상이 가위치기를 하며 앞장서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따라나섭니다. 대열에서 옛타령이 나오면 사이사이에 가위치기를 하여 흥을 돋우고 대열의 아무나가 익살을 떨면서 옛타령을 화답한다. 다시 가위치기로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장내를 돌며 신나게 놀이를 전개하고 이어 풍물패가 등장하여 신명을 한껏 일구어 놓는다. 그리고는 이들 풍물패가 놀이에 참가한 사람들을 이끌고

놀이판에서 퇴장하면 놀이가 마감된다.

㉔ 화해의축제/ 버드내보싸움놀이

이곳이 별판이었던 만큼 별말에서 전해오는 민속으로서 "버드내 보싸움놀이"와 "버드내두레"가 있어 1996년과 1997년에 시행한 대전광역시 민속경연대회가 각 출현한 바 있는데, 버드내 보싸움 놀이의 구성은

- 원대보를 막고 수로를 개보수하는 보막기
- 농사의 풍년을 빌고 보가 무너지지 않기를 비는 보제
- 작인들(소작인들)간에 벌어지는 물꼬싸움
- 보와 보, 즉 마을과 마을간에 벌이는 보싸움
- 보싸움의 갈등을 해소하고 두 마을이 화해의 자리를 갖는 화합의 장

으로 구성됩니다.

㉕ 목달미의 대보름액막이놀이

목달동에는 목달미 디딜방아 액막이 놀이가 옛부터 전해오고 있다. 제31회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종목이기도 한 이 액막이 놀이는 그 옛날에는 곳곳에 있었다하여 특히 정월 대보름날 한 해의 액을 방어하는 큰 행사로 치러졌고 돌림병이 돌 때는 놀이적 성격보다는 액막이 마을 곳에 가까운 형태로 행해졌다고 한다. 디딜방아를 훑쳐 액막이를 행하는 풍습이 그 기원이 고려 현종 때부터 퍼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현종이 12년 5월에 들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들귀신을 위로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토룡(土龍)을 만들고 제사를 지낸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디딜방아로 형태가 변하였다고 전합니다.

목달미 마을에서 전해오는 민속놀이는 마을에 액운이 겼을 때 그 액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웃 마을의 디딜방아를 훑쳐와서는 마을 삼거리에 세우고 그 마을에서 액귀를 몰아내는 제향을 행하며 마을 사람들이 흥겹게 노는 놀이입니다. 이 '디딜방아액막이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이웃마을의 디딜방아를 여러 사람이 상여소리를 내며 메고 와서 마을 삼거리에 세우고 액귀를 몰아내는 제향을 올리는데 여러 아낙네들의 속옷을 디딜방아다리에 걸쳐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과택의 속옷을 디딜방아에 걸치고 햇불을 피워 잔치를 벌입니다. 이 때 액귀를 몰아내기 위한 춤사위나 각종 액귀들의 율동이 특이합니다.

㉖ 웃다리농악

농악은 농부들의 두레를 짜서 일할 때 치는 음악으로, 쟁과리·징·장구·북과 같은 타악기를 치며 벌이는 음악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굿·매구·풍장·금고·취군 등으로도 불린다.

웃다리농악은 지역에 따른 분류 명칭으로서 충청·경기지역의 농악을 가리킨다. 즉

지역적으로 충청·경기의 웃다리농악과 호남지역의 우도농악· 좌도농악· 영남농악· 영동농악으로 나눌 수 있다. 웃다리농악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큰 특징은 칠채가락과 무동타기로서 이러한 특징은 황해도 일부 지역의 농악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다.

충청·경기농악 가운데 지금도 연희되고 있는 대표적인 농악으로는 대전의 웃다리농악 외에 서울 남사당농악, 평택농악, 천안 흥타령농악, 안성 남사당농악 등이 있다. 각 농악단의 상쇠들은 1950년대 후반에 김복만을 중심으로 새로 조직된 남사당패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탓에 현재도 각 농악단의 판제(연희 진행방법 및 구성)는 서로 유사성을 갖는다.

대전 웃다리농악의 판제는 인사굿-돌림벽구-당산벌림-칠채오방감기와 풀기-무동쾌자놀이-소고절굿대놀이-십자걸이(가새치기)-사통백이-왼좌우치기-네줄좌우치기-쩍찌기-풍년굿-고사리격기-도둑굿-소고판굿놀이-무동꽃받기-개인놀이(따벽구, 설장구)-뒷풀이-퇴장굿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제중 가장 고풍인 것은 당산벌림, 칠채가락에 의한 오방감기, 무동타기이며 기타는 다른 지방 농악 판제의 모방 또는 창안에 의해 더해진 것이다.

#### ㉞ 대전의얏은굿

굿은 형태에 따라 크게 선굿과 얏은굿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굿은 무당이 서서 하는 일반적인 굿을 뜻하고, 얏은굿은 충청지역에서 무당이 앉아서 주로 경을 읽는 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역사적으로 불교, 도교 등 다른 종교와 상호관계를 맺으며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얏은굿은 굿에 춤이 더해져 한국 무속의 한 갈래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지역은 얏은굿의 전통이 강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얏은굿 중심 무속문화권을 이룬다.

대전의 얏은굿은 안택굿과 미친굿, 설경이 있는데, 안택굿과 미친굿의 예능보유자는 신석봉으로 1940~50년대 행했던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다. 설경의 예능보유자인 송선자는 1977년부터 무업에 종사해오면서 고(故) 황하청으로부터 15년간 설경을 비롯한 얏은굿을 전수받았다.

#### ㉟ 들말두레소리

들말두레소리는 대덕구 목상동 일원에서 전래되어 오던 논농사와 관련된 일노래이다. 갑천과 금강이 만나는 넓은 들에 자리잡은 목상동은 땅이 기름져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농사일이 성했고 농요 또한 많이 불리었다. 모를 심고 논을 매는 일은 집약적인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마을 단위로 공동작업을 하기 위한 두레가 조직되었다. 농번기가 되어 두레를 짤 때에는 보통 한 집에서 한 사람이 참

가한다. 들말에 80호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 들말의 두레는 80명 규모의 큰 노동조직이었던 셈이다.,

논일을 하러 나갈 때에는 마을 빈터에 두레꾼이 모두 모인 후 농기를 앞세우고 풍장을 치며 논으로 향한다. 논에 도착하여 작업을 시작하면 선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모든 두레꾼이 우렁차게 뒷소리를 받으며 작업을 한다. 이 논농사소리는 온 들에 울려 퍼지는데 멀리서 듣는 사람까지 저절로 신명이 나게 했다고 한다. 바로 이 신명난 논농사소리를 통해 일의 고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농요는 옛사람들의 집단적 신명을 담아낸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는 들말두레소리의 대표적인 노래로는 모찌는 소리인 ‘몽치세’, 모심는 소리인 ‘상사소리’, 논매는 소리인 ‘긴 상사소리’와 ‘자진 상사소리’가 있고, 이밖에 맞두레소리, 도리깨질소리 등이 있다.

보유자 고석근은 목청은 다소 거치나 단단하고 울림이 좋으며 선소리꾼으로 갖춰야 할 초성(목청)과 문서(사설)가 좋고 사설을 선택하고 가락에 안배하는 솜씨가 탁월하다.

#### ◎ 도안동 농요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부락에서 전승되어온 농요놀이로서 정확한 연월은 밝히기 어려우나 현재 70세 이상되신 노인들 중 어렸을 때 듣고 배우고 직접 참여한 일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약 250년전부터 이 고장에서 성행했던 토속적인 놀이로서 연연히 전해지고 있다. 도안동의 상징인 농기와 영기를 든 기수의 신호를 시작으로 영기, 농기, 농악, 농민 순으로 흥겹게 농악 자진삼채 가락에 맞추어 제각기 춤을 추면서 모심기 준비를 하고 논일을 하며 이웃과 같이 마을의 안녕을 빌고 가무식곡으로 밤이 새도록 화합하고 협동하는 놀이이다.

#### ⊗ 온천동 착정놀이

이 놀이는 서민들이 온천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샘을 팔 때 용왕신에 제사를 지내고 샘을 파는 과정을 묘사한 놀이이다. 샘을 파러 가는 과정에 잭키 세대를 동아줄로 여러 사람이 끌고 갈때의 민요와 용왕제를 지내는 과정 그리고 다시 샘을 팔 때 줄다리기에 따른 민요와 온천수가 솟았을때의 환호성에 따른 놀이로 집중되어있고, 총 다섯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가락리 두레농악놀이

이 놀이는 그 기원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현재 주민들 중 노인분들은 직접 참여도 하였고 두레농악 놀이와 김매기 노래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락리 두레의 농경방식은 노

래, 춤, 노동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는 시기에 두레를 조직하여 집집마다 한 사람씩 호미를 들고 마을 공터에 모여 풍장을 치고 흥겨웁게 농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논배미로 가서 김매기 노래를 부르면서 김을 매고 마을에 돌아와서는 두레 농악 놀이를 하는 토속적이고 소박한 놀이로서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 ㉔ 목상동 들말 두레놀이

대덕구 목상동에서 전승되고 있는 이 두레놀이는 이 곳 지형 특성상 수해를 많이 입는 곳으로 홍수가 나면 재빨리 대피하여 목숨을 구해준 주민 생활의 중심지 역할인 토산을 대상으로 매년 상달에 마을의 무사태평을 비는 토산제를 지내고 두레를 모집해 농사의 풍년을 염원하는 두레놀이를 열었다. 들말 두레놀이의 구성은 홍수를 막기 위한 토산쌓기, 농사의 풍년을 비는 토산제, 물이 잘 나기를 기원하는 샘굿고사소리, 두레가 조직되어 호미로 논을 맬 때 부르는 초벌매기 소리, 밭두레가 낫을 때의 두레 싸움, 아시매기 뒤에 손으로 논을 매는 재벌매기 소리, 김매기가 끝나고 칠석날 행해지는 두레로 구성된다.

#### ㉕ 산내 들돌놀이

들돌을 섬겨온 정신기조는 우리 인류가 원시사회부터 숭배한 거석신앙(巨石信仰)의 일종으로 그 역사성이 깊다. 또한 국내 들돌유적을 조사 수록한 연구논문과 취합하면 칠석과 백중 무렵 많이 지낸 들돌제사, 농투산이 진쇠승격의 들돌관례, 총각대방 선출 들돌 힘겨루기, 들돌 깎지 끼고 내닫기 경주, 들돌 둥구나무 가지랭이에 합궁시키는 가수(嫁樹)행위, 아낙들의 생식 기원행위 등으로 들돌 민속의 정신 기조를 정립할 수 있다.

완력과 생식숭상의 들돌놀이가 병행한 정신기조도 살펴 볼 수 있다. 칠석 무렵의 두레놀이는 일면 호미씻기 놀이라고 명칭되어 힘들었던 농사일이 벗어나 한 숨들이는 절기에 행해졌는데, 풍농의 제의식과 완력이 숭상되는 놀이였기 때문에 들돌제사와 들돌놀이도 병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히 풍물놀이를 앞세운 이 놀이도 민초들이 함께 즐긴 모의적 연희성으로 보여지며, 특히 둥구나무 가수행위는 인간이나 동물의 성교행위를 모방하여 그 생식성을 풍농과 연계시킨 연극적 연희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필자는 이것을 「산내 들돌놀이」라는 제목으로 구현하여 1994년부터 두 차례 대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도록 주동한 바 있다.

#### ㉖ 도안동 옥녀봉 기우제

옥녀봉 기우제는 94년 대전광역시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 비로소 세인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옥녀봉 기우제가 전승되는 도안골은 기우제를 자주 행할 만큼 물사정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촌로 들에 의하면 기우제를 지낸

것은 총 4~5회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도안동에서는 옥너봉 기우제 보존회를 결성하여 주민들 스스로 전승보존에 힘쓰고 있다.

㉔ 평촌 지경다지기 놀이

지경다지기는 지경석이나 지경목으로 집을 지을 자리를 다지는 공동노동행사이다. 그러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선택하고 고르며 다지는 일은 단순히 땅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다. 이는 선조들의 신앙과 풍수사상 속에 땅이란 살아있는 생명체였기에 집터를 다지는 일은 땅을 다지는 노동을 넘어서 자신에 대한 숭배와 일체화 과정의 제례행위였으며 두레 공동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적 놀이행위였다.

동구	사한리 송직각 장례 추도지구 대보름제	중구	목달미 디딜방아 액맥이놀이 부사칠석놀이 문창동 옛장수 놀이
서구	도안동 농요 우명동 두레농악 가락리 두레농악놀이 도안동 옥너봉 기우제 편촌지경다지기 놀이	유성구	온천동 착정놀이 바구니 둥구나무제
		대덕구	신디마을 탐제 목상동 들말 두레놀이

표 21 . 대전지역의 민속놀이

\*대전광역시에는 해마다 가을처에 시행하는 대전민속예술경연대회

**3) 대전지역의 인물<sup>13)</sup>**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이 배제된 역사란 있을 수 없다. 대전지역에 저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다.

**(1) 박팽년**

조선 초기의 학자이며 충신이다. 자는 인수, 호는 집대성, 취금현, 본관은 순천이고 대사헌 박중림의 아들이다. 집대성은 그가 학문에 통달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박팽년은 1434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삼문 등과 함께 집현전 학사가 되어 여러

13) 대전광역시, 2007, 『대전의 역사와문화』, 대전광역시역사문화교과서편찬위원회

가지 편찬 사업에 참가하였고, 세종의 뜻을 받들어 황보인, 김종서 등과 함께 문종을 보필하였다. 1445년(단종 2), 왕의 숙부이던 수양대군이 단종을 위협하여 왕위를 물려받자, 박팽년은 성삼문, 유응부, 하위지, 이개, 유성원, 김질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하였다. 그러나 함께 했던 김질의 배반으로 단종 복위는 실패로 끝나고, 박팽년, 성삼문, 유응부 등 사육신은 모두 처형되었다. 처형 전, 세조는 그의 실력을 안타깝게 여겨“거사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하였다. 그러나 끝내 세조를‘나우리’라 부르고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심한 고문을 당한 후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내 속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으니 내가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세조의 불의를 눈감아 주고 조금만 굽히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자기의 속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것인즉, 차라리 깨끗이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박팽년의 묘는 다른 사육신들과 함께 서울 노량진의 사육신 공원묘지에 있다. 숙종 때에는 선생의 관작이 회복되었고, 영조 때에는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또한 충정공의 시호가 내려졌다. 사육신 가운데 박팽년 한 분만이 후손이 남아 대가 이어졌는데 그 곡절은 다음과 같다. 당시에는 역적모의를 한 자는 삼족(친가, 외가, 처가)을 죽이게 되어있었다. 박팽년의 둘째 아들인 순도 처형되었으나, 그의 아내 성주 이씨는 노비가 되어 대구 지역의 관비가 되었다. 당시 성주 이씨는 임신중이었는데, 사내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관청의 노비가 되도록 되어 있었다. 때마침 부인의 종도 임신 중이었는데 부인은 아들을낳고, 종은 딸을 낳자 바꾸어서 길렀다. 그 후 성종 3년, 부인의 아들이 성장하여 17세 되던 해, 조정에 자수하였고, 조정은 그를 특별히 사면시켜 주어 그 후손이 이어지게 되었다. 동구 가양동(더퍼리)에 그가 살던 집터가 남아 있다.

## (2) 김 정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학자이다. 호는 충암이며, 본관은 경주로 보은 출신이다. 김정은 19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22세 때인 1507년(중종2)에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여러 벼슬을 거쳤다.

1514년(중종 9)에는 순창군수가 되었는데, 이 때 담양부사 박상과 함께 중종 비신씨 복위 상소를 올렸는데, 이는 중종 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후 신씨를 폐출한 것이 명분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김정은 신씨 폐출에 앞장섰던 반정공신 박원종 등의 처벌을 주장하였다가 도리어 왕의 노여움을 사서 유배되었으나 2년 후에 풀려났다. 이때 조광조는 김정 등의 처벌을 주장한 대사간을

탄핵하는 등 김정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다.

이후 김정은 대사헌과 부제학,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면서 조광조와 함께 개혁운동을 주도하였다. 김정은 조광조와 함께 사림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현량과 실시, 소격서 폐지 등과 같은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훈구파의 반발에 의하여 기묘사화로 이어졌다. 이때 김정은 영의정 정광필의 간청으로 겨우 죽음을 면하고 금산으로 유배되었지만 후에 다시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하였다. 그 때 그의 나이 36세였는데 퇴계 이황은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충절을 높이 기렸다. 1545년 인종 원년에 복관되었고, 1646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간공이다. 보은의 상현서원, 회덕의 승현서원, 청주의 신향서원, 제주의 굴림서원, 금산의 성곡서원 등에 배향되어 있다.

저서로는 『충암집』이 있는데, 김정의 9세손 상협이 유사를 모아 놓은 것을 그의 아들 성태가 1845년(현종11)에 간행하였다.

김정은 내탑(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에 살았고, 그가 살던 가까운곳 신하동에 묘소가 있다.

### (3) 권 시

조선 후기의 학자로 자는 사성, 호는 탄옹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24세(1627년)에 증광 초시에 합격하였다. 이 해에 가족을 이끌고 탄방리(지금의 탄방동)로 이사 온 뒤,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 지역에 살고있다.

그는 조용히 도산 기슭에서 공부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언제나“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였다. 운명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공부와 인격을 닦는 도학자다운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여 북벌을 염두에 두고 널리 사림을 초빙하자벼슬에 나아가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가 되었고, 53세에는 경연에 나가 대학연의를 강의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남을 배려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썼다.

그는“하늘은 아버지이고, 땅은 어머니이다. 백성은 동포이고 물질은 나와 더불어 있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하루라도 그 어버이를 잊을 수 없는 것이니 마땅히 천심으로 마음을 삼는 것이며, 천하의 백성이 모두 하늘의 자녀로서 나의 동포가 된다.”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동포이기 때문에 형제애로써 그들을 보살피주고 이끌어 주며,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며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나 법은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에 따라 징수액이 다른 대동법의 모순을 시정할 것과 부당한 세제를 고칠 것을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권시의 학문과 사상적 배경은 당시 주자 중심의 성리학적 틀에서 벗어나 주역 및 공자, 맹자 등 선진 유학에 학문적 뿌리를 두었다. 우주론에서는 주역의 태극사상에서 출발한 장횡거의 천인합일사상을, 인성론에서는 이황과 이이의 학문적 사상을 이어받은 아버지 권득기의 사단칠정 및 인심도심론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 특히 예학에서는 그 스승인 박지계의 사친지효를 근원으로 한 예론과 권득기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대동법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군포의 폐단을 고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효종-현종대의 산림학자로서 북벌운동에 참여하였고, 백성을 위한 세계 개혁 등을 주장하였으며, 예학에도 밝았다. “매사에 옳은 것을 구하고 차선은 취하지 말라.”는 아버지 권득기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고자 애썼다. 그가 살던 이웃 탄방동에 도산서원과 묘소가 있으며, 문집으로 『탄옹집』이 전하고 있다.

#### (4) 권 시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성리학자이다. 자는 명보, 호는 동춘당, 시호는 문정, 본관은 은진이다. 지금의 대덕구 송촌동에 살았던 조선 예학의 대가였다. 그가 태어난 곳은 서울 정릉(덕수궁 옆)인데, 같은 집에서 이미 김장생과 김집이 태어났으므로 후에 사람들이 이곳을 삼현대라 하였다.

9세 되던 1615년에 송시열과 같이 공부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송준길과 송시열은 혈연 및 학연으로서도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18세에 김장생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김장생은 송준길이 “장차 예학의 대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1624년 생원 진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다시 이듬해 여름에 별시 초시에 합격하였지만 벼슬에 나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힘썼다. 그러다가 27세에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직책인 동몽교관이 되었으나 곧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 후 1649년 효종이 즉위한 후 북벌운동을 펴고자 하여 지방에 거주하면서 유림을 이끄는 큰 선비들 즉 산림들을 초빙하였다. 이 때 선생도 밀지오신의 한사람으로 벼슬에 나아가 청나라에 아부하며 권세를 부리고 있던 무리를 몰아내고, 송시열 등과 함께 효종을 도와 북벌 운동에 깊이 참여하였다. 그 후 예송에 관련되기도 하였으나 말년에는 고향에 돌아와 67세로 눈을 감았다. 선생은 송시열과 함께 기호학파의 정맥으로서, 특히 예학에 뛰어나서 많은 예문답을 남겼고 예송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글씨에도 뛰어나서 많은 금석문을 남겼는데, 그의 글씨는 송시열의 글씨와 함께 양송체

로 칭해진다.

선생은 율곡의 학설을 따르면서도 퇴계의 삶과 인품을 존중하였다. 그의 학설은 특히 경(敬)을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었다. 벼슬은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으나 만년에는 고향 회덕으로 낙향하여 후학을 기르는 한편, 회덕 향약을 만드는 등 향촌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시호는 문정공이고 후에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문묘에 배향되었다. 공주의 충현서원, 회덕의 송현서원 등 많은 서원에 배향되고 있다.

## (5) 송 시 열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성리학자, 정치가이다. 자는 영보, 호는 우암, 본관은 은진이다. 송시열은 지금의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구룡촌 외가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체격이 매우 좋았다. 여덟 살 때부터 친척인 송이창에게 글을 배웠다. 송이창은 송준길의 아버지인데 그때부터 송시열은 한 살 위인 송준길과 같이 공부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일생을 두고 학문과 정치 생활에 있어 그와 고락을 함께 하는 사이가 되었다.

25세 되던 해 김장생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연마하였다. 김장생은 율곡 이이의 수제자로서 예학의 제1인자였다. 이로써 이이의 학통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고, 김장생이 세상을 떠난 뒤 김집에게 학문을 배워 대성하였다.

송시열은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였는데 이때 시험관인 대제학 최명길은 무릎을 치며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큰 선비가 났으니 이제 중국의 도학은 우리 동방으로 왔다.”고 칭찬하였다 한다. 그해 10월, 경릉 참봉의 벼슬을 받았으나 나이 많은 어머니를 떠나 먼 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하여 곧 돌아오고 말았다. 1635년 봉림 대군의 스승이 되었고, 병자호란 때에는 왕을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나 1637년 화의가 성립되자 고향에 내려와 벼슬을 사양하고 나오지 않았다. 효종이 즉위한 후 북벌의 뜻을 펴고자 산림들을 부르니 비로소 조정에 나아갔다. 효종은 옛날 스승인 송시열을 매우 신임하였다.

송시열은 본래 말이 적어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안부 인사가 끝나면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학문적인 문제나 의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번은 연산 출신의 친한 관료인 김익희가, “말이 너무 적어서 할 말을 안 하는 것도 탓할 일인데, 그대는 말이 너무 많으니 그것이 결점이다. ‘우’자를 넣어서 호를 삼으라.”고 하였다. 송시열이 “좋은 호라면 내가 사양하겠지만 좋지 못

한 호를 어찌 사양하겠는가!’라고 하여 호를 ‘우암’이라 했다.

말년에는 정계에서 은퇴하여 청주 화양동에 은거하였다. 1689년(숙종15) 왕세자가 책봉되자 이를 시기상조라 하여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제주로 유배되었고, 이어 왕의 심문을 받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오던 도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일생을 마쳤다. 그 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남인에 의해 쫓겨났던 이들이 명예를 회복하면서 송시열 또한 복권되었고, 기호학파의 학통이 정통성을 되찾게 되었다. 송시열은 28세에 대군사부로 벼슬에 나아간 후 여러 벼슬을 거쳐 마침내는 좌의정에 이르렀고,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는 국가 최고의 대우를 뜻하는 명예직인 봉조하(奉朝賀)에 이르렀다. 그동안 임금과 조정의 부름을 받은 것이 무려 100여 회에 이르지만 실제로 조정에 나간 것은 20여 회에 그쳤다. 그러나 조선왕조사에 미친 그의 역할과 위상은 매우 컸다. 그것은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무려 3,000회 정도가 수록되고 있는 데서 입증된다.

송시열의 생애는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기복이 심하고 파란이 많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그만큼 극단적이고 다양하다. 그러나 내우외환의 어려운 환경에서 북벌과 같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곳곳이 의리를 실천한 사실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문집의 명칭인 『송자대전』은 송시열을 중국의 공자나 맹자, 주자에 버금가는 성인으로 여겨 송자(宋子)라 한 데서 비롯한 것이며, ‘문집’이라 하지 않고 ‘대전’이라 한 것도 중국의 주자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한 것으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이며 유일하다. 이는 송시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노론이 정계와 학계의 주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송시열을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시킨 점도 있지만, 그의 업적과 학문이 그만큼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송시열은 기호학파의 중심축으로 성리학과 예학에 뛰어났고 예송에도 참여하였다. 또한 그의 글씨는 송준길의 글씨와 함께 양송체로 칭해진다. 말년에는 회덕과 화양동 등지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회덕향약과 청천사창을 만드는 등 향촌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시호는 문정공이고 후에 영의정에 증직되었으며, 문묘에 배향되었다. 여주 대로사, 화양동의 화양서원, 회덕의 남간사와 송현서원을 비롯하여 전국 70여개의 서원·사우에서 제사지낸 바 있고, 지금도 40여 곳에서 제사지내고 있다. 동구 가양동에 그를 기리는 우암 사적 공원이 있다.

## (6) 송 병 선

자는 화옥, 호는 연재이며, 시호는 문충, 본관은 은진이다. 1836년 동구 성남동 본가에서 태어나 1905년 순절하였다. 묘소는 전북 옥구군 임피면 전중리에 있다. 송병

선은 어려서부터 백부 송달수에게 배우고 또한 숙부 송근수의 영향을 받아 가학을 충실하게 계승하였는데, 특히 9대조인 우암 송시열의 도학과 의리 정신을 철저히 이어받았다. 조정에서는 송병선의 학덕을 인정하여 여러 차례 벼슬을 주었지만 나아가지 않고, 향리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는 도학과 역사에 대한 저술에도 힘을 기울였다. 41세 때에는 조광조·이황·이이·김장생·송시열 등 다섯 유형의 문집에서 좋은 글을 골라서 『근사속록』을 지었고, 조선 도학의 연원을 다룬 『동유연원록』, 현실적 경세론을 다룬 『무계만집』을 저술하였다. 1905년 일제는 조선 조정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였다. 송병선은 이에 분개하여 서울로 올라가서 국왕을 만나 개혁안을 올렸다. 이후 송병선은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강제로 납치되어 고향으로 호송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 말에“나라가 망하였으니 성인의 도가 또한 더 불어 망한 것”이라고 탄식하면서 자결하였다. 그의 순국은 성인의 도를 수호하고 일제의 무력적인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이었다. 송병선의 순국절의 정신은 그의 학문과 사상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송시열의 도학 정신을 철저히 이어받았고 그 정신적 기반 위에 학문적인 공적을 쌓아 올렸다. 그 학문과 사상이 완숙기에 해당되는 65세에는 신라의 삼국통일부터 조선 말기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동감강목』 27권을 저술하였다. 송병선의 사후, 그에게는 의정대신이 추증되었으며, 문충(文忠)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1914년에는 영동에 그를 기리는 문충사가 세워졌다. 문충사는 1965년 대전 보문산으로 이전하였다가, 이듬해 다시 동구 용운동 지금의 자리로 이전되었는데, 이때 유럽의 뜻을 따라 서원의 형식을 갖추어 용동서원이라 하였다. 문집으로는 『연재집』이 전하고 있다. 그가 살던 동구 용운동의 문충사 그리고 성암사, 만주사, 경양사 등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 (7) 신 채 호

독립 운동가이며 역사학자, 언론인이다. 신채호는 1880년 중구 어남동 진외가에서 가난한 선비인 아버지 신광식과 어머니 밀양 박씨와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고령이고, 호는 단재, 일편단생, 단생 등이다.

1887년 8세 때 아버지를 잃고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로 이사하였다. 여기서 할아버지께 한문을 배웠는데 13세에 사서삼경을 독파하여 신동으로 불렸다. 16세에 결혼하였으며 1898년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그 후 1901년에 집 근처의 문동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였고, 1902년에는 성균관에서 조소앙 등과 함께 항일 성토문을 작

성하고 친일파를 규탄 하였다.

26세가 되던 1905년에 성균관 박사가 되었다. 같은 해 황성신문사의 논설위원에 위촉되어 계몽 논설을 집필하였다. 그 후 대한매일신보사의 주필로 취임하였다.

1907년에는 이동녕, 이회영,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에 관여하는 한편, 국채보상운동에 가담하였으며, 민족정신을 심어주는 글을 신문에 연재하였다.

1910년 『독사신론』을 ‘국사사론’이란 제목으로 《소년》지에 발표하였으며, 안창호, 이갑 등과 함께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였다. 그후 박은식, 문일평 등과 박달학원을 건립하여 해외 청년들을 교육시키기도 하였고,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교육하기 위해 『조선사』를 발간하였다. 40세 되던 1919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의정원 의원이 되기도 하였다. 1925년 동아일보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1927년에는 신간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1930년 4월에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아 중국의 여순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1936년 2월 21일, 57세를 일기로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 해 동아일보에 연재된 글을 묶은 『조선사연구초』가 간행되었다. 그의 유해는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안장되었으며, 일제의 눈을 피해 묘비만 한용운이 세운 바 있다. 신채호가 여순 감옥에서 순국한 후, 1945년에 중국에 신채호 학사가 설립되었고, 1962년 3·1절에 대한민국 공로훈장복장이 수여되었다. 신채호는 평생을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 운동가이며 민족사관에 바탕을 두었던 역사학자인 동시에 언론인, 문학가였다. 그가 대한제국 말기에 전개했던 애국계몽 운동이나 민족의 수난기에 몰두했던 민족사의 정리, 그리고 그가 언론이나 문학에 끼친 업적 등은 길이 빛날 것이다. 중구 어남동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 4) 대전지역의 역사적 사건<sup>14)</sup>

##### (1) 대전에서의 척사운동과 의병항쟁

대전지방은 조선후기 이후 송시열·송준길과 같은 대유학자를 배출하여 주자학적인 학풍이 강했던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 인근인 옥천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대원군 정권기에 전국적으로 척화비가 설립되었는데 충청도 내륙지방인 옥천에 설립된 것은 옥천과 회덕 지방에 이들 유생들이 결집해 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대원군 정권기에서는 서원철폐령을 내려 전국의 47개를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하였다. 대전지역에도 송현서원을 비롯하여 정절서원·도산서원·미호서원·용호사 등이 철폐되었다. 그러나 회덕 출신의 송근수(宋近洙)가 대

14) 大田廣域市史料編纂委員會, 2002, 『大田100年史』 第1卷

원군에게 좌의정으로 중용되는 등 대전 지역의 양반유생들은 오히려 대원군의 신임을 받았으니 대원군 정권기 대전지역 양반유생의 기반은 공고했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중·후기 대전지방인들은 서양의 문물에 대하여 척사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그 가운데 송달수와 송근수는 송치규(宋釋圭)의 문하에서 성리학과 예학을 수학하여 송시열의 가학을 전수받은 인물로 송병선(宋秉璿)을 비롯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어 이 지역 위정척사운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송근수는 1848년 증광문과에 급제한 뒤, 대사헌·이조판서·좌찬성·우의정 등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의 척사사상은 조카인 송병선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쳤고, 송병선은 그의 동생 송병순(宋秉殉)과 함께 문인들은 규합하면서 연재학파(淵齋學派)를 형성하여 대전을 중심으로 위정척사운동을 벌여 나갔다.

송병선의 문인으로는 송병순을 비롯하여 진주의병장 노응규(盧應奎), 자결 순국한 조희제(趙熙濟), 금산 유희군 대표 고제학(高濟齋), 대한광복회 회원 조용승( 조용승)·조백영(조백영) 등과 안규용(안규용)·정기연(정기연)·이병운(이병운)·김재홍(김재홍) 등이 알려진다. 송병순은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송병선이 이를 파기하기 위하여 활동하다가 순국하였음을 두고, “옳은 길을 지켜 죽을 때이다”라 하고 구국활동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해 11월에 「토오적문(토오적문)」을 지어 전국 유림에게 선포하여 민족정기의 양양과 국권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였다. 노응규는 1896년 경상도 안의에서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을 점령하고 일본군과 김해 전투를 치르고 부산항을 점령하고자 하였으며, 1906년에는 황간에서 재기병하여 활동하던 중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07년 옥사하였다. 조희제는 전북 임실 출신의 유학자로 송병선과 기우만에게 수학하였다. 그는 1895년 의병봉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1905년 을사조약의 늑결과 스승의 자결을 보면서 국난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지사들의 사적을 모아 『염재야록(염재야록)』을 저술하였다. 1938년 이것이 발각되어 옥고를 치렀으며, 풀려난 후에도 협박을 받게 되자 극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고제학은 1894년 동학농민군에 대비하기 위한 의회군을 조직하고 의회장(의회장)에 추대되어 동학군의 금산 침입을 방어하다가 전사하였다.

대전의 유학자로 송병선 외에도 이사동에 거주하던 송병화(송병화)가 있다. 그는 1884년 갑신변복령이 공포되자 이를 반대하는 「의복설(의복설)」을 지어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사상은 대전지역에서 경주김씨 송애공파(송애공파) 인물들과 은진송씨 사우당파(사우당파), 그리고 광산김씨 인물들에게 영향을 끼쳐 여러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 이들 중 김성익(김성익)은 문석봉(문석봉)의병에 참여하는 등 의리론(의리론)에 철저한 척사론자였으며, 그의 아들 가운데 김직원(김직원)과 김노원(김노원)은 부친의 영향으로 3·1운동에 참여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사이기도 하다. 송병관(송병관)은 단발령이 내려지자 “우리의 도가 망했다”고 통분하였으며, 을사늑약 직후에는 가족을 이끌고 산 속으로 들어가 칩뿌리와 감자로 목숨을 부지하는 등 은거생활에 들어갔다. 송병관의 문인 중에 김태원(김태

원)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한 인물로 유명하다.

대전에서의 의병투쟁은 경북 현풍 출신인 문석봉에 의해 주도되었다. 무과출신인 그는 동학 농민군이 득세하던 1894년 11월 공부주의 소모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동학군 진압에 큰 공을 세워 인근의 양반들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이는 그가 명성왕후의 시해 소식을 듣고 이를 복수하기 위하여 유성에서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 특히 이 지역 유림의 대표자인 회덕의 송근수와 진잠의 신응조는 의병의 지원세력이 되었다. 또한 송준길의 후손으로 이 조참판을 역임한 송도순이 의병의 군량을 책임졌으며, 병자호란때 척화를 주장했던 김경여의 후손인 김성익이 의병을 후원하였다.

이와 같이 문석봉은 대전의 유력한 양반가문들의 지원 하에 1895년 9월 18일 유성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일어난 을미의병으로서는 전국에서 최초의 일로 의병사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문석봉이 충북의 보은에서 기병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던 것이 최근의 연구에서 대전의 유성에서 봉기한 것으로 시정되기에 이르렀다.

문석봉은 의병을 일으키고 공격의 목표를 공주부 관아로 잡았다. 우선 그는 회덕현의 무기를 탈취하고 진잠현감에게 동참을 제의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문석봉은 10월 28일 의병을 이끌고 공암을 지나 공주의 와야동에서 관군과 일전을 겨루었다. 그러나 의병은 매복해 있던 관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패하고 말았다. 문석봉은 패산 후 경상도 고령과 초계 등지에서 재봉기를 시도하였으나 대구부에서 파견한 순검에 의해 체포되어 대구부에 구금되었다. 그는 이듬해 봄에 중군장 오형덕 등과 함께 파옥하여 원주일대에서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불행하게 병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처럼 그는 개화정권의 구조적 모순과 제국주의 세력의 무력적 침략을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으나 그의 의병투쟁은 송근수와 신응조·송도순 등 중신들의 찬동과 협조 속에서 성립될 수 있었다. 이들 외에도 대전지역 인사들의 지원을 받아 유성의병을 일으켰다. 이는 유성의병이 향촌세력의 지지기반 위에서 봉기한 반침략 항일의병이었음을 알려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이듬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자 의병투쟁은 다시 불붙기 시작하였다. 을사조약의 늑결로 국권상실의 위기를 당하자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1906년 전참판 민중식이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홍주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본 경찰을 사살하는 등 전과를 수립하였다. 후기의병기에 대전지역에서의 의병투쟁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 홍주의병에 유성에 거주하였던 박윤식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많은 대전출신 인사들이 다른 지역 의진에 참여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경남의 함양과 전북의 남원·무주일대에서 다수의 전과를 올린 김동신을 비롯하여 1907년 한봉수 의진에 참여한 김정필 등이 확인된다.

한편 대전 출신의 유학자들은 일제의 침략에 자결, 순국의 방법으로 항쟁하기도 하였다. 송병선·송병순 형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송병선은 을사조약의 늑결 소식을 듣고 상경하여

부당성을 상소하였으며, 일본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귀향하게 됨에 대전의 성남동 자택에서 자결,순국하였다. 그의 동생인 송병순 역시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나라를 위하는 충성과 겨레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순국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고 그해 9월 자결을 기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그 뒤 1912년 일제가 그를 경학원 강사에 임명하고 은사금을 주어 회유하려 하자 이를 거절하고 대의를 지켜 순국할 것을 결심하고 음독 자결하였다. 이들 형제의 자결, 순국은 대전 지역인들에게 구국의지를 불러일으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을 수행하는 정신적 지주가 되기에 충분하였다.

## (2) 대전에서의 개화운동과 애국계몽운동

1876년 개항이 된 이후에 개화의 물결이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가는데 비해 대전지역에서 개화의 움직임은 찾기가 어렵다. 이는 대전 지역의 주자학적 학풍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80·90년대에 이르러서도 대전지역에서의 이렇다 할 개화운동은 전개되지 못했다.

1894년에 갑오경장의 시행으로 일련의 제도가 개정되었다. 홍범 14조를 반포하고 총 213년의 법안이 제정·실시되었다. 이때 지방제도를 개혁하여 기존의 도·부·목·군·현 등을 대폭적으로 폐합되어 전국이 23부 337군으로 개편되었다. 대전은 공주부의 소속이었으며, 이때 회적과 진잠은 각기 군으로 승격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라 각급 재판소 설치 역시 변화를 겪었다. 1896년 8월 27일에는 각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위치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의 재판소에서 관장하던 문부 및 죄수와 나머지 일체기구를 각각 부근의 신설재판소로 이속시키도록 하였다. 충남재판소는 공주에 두어 대전의 회덕군과 진잠현을 비롯한 38개 군을 관할하게 하였다. 재판소구성법은 통감부가 설치된 후 새로이 제정되어 종전의 재판소가 폐지되고 재판소제도는 전면 개편되었다. 각 재판소에 검사국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1908년 1월 1일자로 공주지방재판소가 개칭되고 검사국이 그 산하에 개칭되었다. 1909년에는 민적법과 그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민적법집해심득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가족사항을 경찰서·경찰분서와 순회주재소에 비치되어 있는 민적부에 새로이 기재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를 무시하고 일본식 제도를 그대로 적용시킨 것으로 식민통치의 일환이었다. 우국지사들은 일제에 항거하는 수단인 민적을 거부하였다.

개화운동은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에 의해 그 맥이 단절되었으나 개화사상 자체는 시민층속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896년 7월 서재필을 중심으로 독립협회가 조직되어 일반민중을 계몽하는 대중적 정치운동을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협회 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대전에서의 활동을 찾아볼 수는 없다.



1904년부터 개화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실력양성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각 지방별로 학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들이 서우학회, 함경도 출신들이 한북흥학회, 호남출신들이 호남학회, 기호출신들이 기호흥학회, 경상도 출신들이 교남학회, 강원도 출신들이 관동학회 등을 설립한 것이다. 이들은 월간지인 학보를 발행하여 근대학문을 소개하고 논설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전국의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여 지방민을 계몽하였으며, 아울러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대전지역에서 지회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등 대전지역에서의 학회의 활동은 미미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표적인 계몽운동가인 신채호(대전의 어남동 출신)는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의 주필로서 언론을 통한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전국적으로 전개되던 국채보상운동은 대전지역에서도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7년 김광제(보령 출신) 등이 대구에서 시작한 국채보상운동은 그 해 2월 서울에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되고 전국에 국채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07년 이 운동에 참여한 이가 4만 명에 달하고 모금액도 230만여 원에 달하였다. 비록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민중들이 대거 참여한 항일운동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대전지역에서의 국채보상운동은 진잠 출신의 박우서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1907년 2월경 국채보상취지서를 작성하여 모금운동에 착수하였다. 취지서에 의하면, 발기인으로 박우서 외에도 박시양·박제봉·오성한·박준양이 서명하였다. 이들은 “1년간 담배 값이 수백 환에 이르니 담배를 끊지 않으면 국채를 갚기가 어려워 산업이 망할 것이다”라면서 단연을 통해 국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기 영남은 현사(현사)가 많은데 호서에는 홀로 사람이 없겠는가? 5백년 동안 나라를 위해 충성을 도모함이 어찌 다른 고을보다 못하리오”라면서 호서지역 인사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발기인 박우서는 진잠에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계몽운동에도 앞장섰다. 그는 1904년 진잠의 미림리(현, 서구 용촌동)에 협창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협창학교는 1914년 강제로 폐교되었으나, 박우서는 1925년 이를 다시 설립하여 길현의숙이라 하였다.

대전에서의 사립학교 설립운동은 회덕에서도 일어났다. 1906년 전감찰 송헌범은 회덕의 대동리(현, 동구 대동)에 자신의 가옥을 개축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대아학교(대아학교)라 하였다. 자본금 6천 원에 학생 수는 180여명에 달할 정도였다. 진잠군수 조돈승(조돈승)은 주민의 도움을 받아 진잠향교와 하남면에 각기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학생수가 12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 그는 야학의 설립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8년 4월에는 신흥학교가 설립되었으나 자세한 교육내용은 알려지지 않는다.

대전지역에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파는 비교적 늦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지

역의 깊은 유학적 연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공주에 천주교 본당이 건립된 것이 1897년이다. 천주교의 포교는 공주본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전지역으로 그 교세가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그 교세는 미미하여 신자들의 집회 장소인 공소(공소)가 1915년 가을에 가서야 대전에 설립되기에 이른다. 현재의 대전시 목동에 대전본당이 설립된 것이 1919년의 일이다. 개신교는 이 보다 빠른 1907년에 감리교 구역이 회덕에 설립되면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1939년에 가서야 비로소 건립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늦은 편이다.

### (3) 대전에서의 농민항쟁과 동학농민전쟁

19세기 중엽이후 조선왕조는 기형적 정치형태인 세도정치가 지속되어 만성적인 국가 재정의 위기를 불러왔다. 국가재정의 위기를 농민 수탈로 모면해 보려는 국가의 정책은 바로 삼정의 문란을 야기시켰다. 그 결과 세금의 부담은 농민층에 집중되었다. 게다가 거의 해마다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농민층의 삶의 기반이 더욱 위태롭게 되었다.

농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였다. 19세기 지배층에 대한 농민봉기는 철종과 고종 연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1862년 '임술민란'은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주도자만을 처형하는 방식이었고 농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는 미온적이었다. 삼정 문란의 폐단은 계속되었고 1864년부터 농민봉기는 재연되어 188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갔다.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고종대의 민란은 전국 46개 처에서 57회에 걸쳐 발생하였다. 이러한 민란은 대규모 농민항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시켰고 마침내 1894년 반봉건과 반외세의 동학농민전쟁을 폭발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대전에서의 농민운동은 1862년 임술민란시 회덕과 진잠에서의 봉기로 시작되었다. 회덕의 농민항쟁은 1862년 5월 10일 초군(초군)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김진옥이 주도한 농민군은 5월 10일 통문을 돌리고 관아를 공격하고 각 마을로 흩어져 평소에 원한이 많았던 양반가 74채를 습격, 방화하였다. 이들은 양반에 대한 보복을 마무리지은 후 이웃 청주목 진출하여 청주에 있는 양반에 대한 공격도 감행하였다. 이처럼 회덕의 농민항쟁은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이서층에 대한 공격이나 수령에 대한 보복행위는 보고되지 않고 향촌사회의 지배 세력인 양반층을 공격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것은 회덕이 당시 집권 노론의 세거지로서 재지 양반층이 수령이 간섭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회덕의 농민항쟁은 충청도 지역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것으로 인근 지역에 영향을 끼쳐 5월 19일에는 진잠에서도 초군들이 인가를 습격,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회덕에서의 농민항쟁은 이후 대전에서의 양반세력과 농민세력간의 갈등과 대립

의 원초가 되기도 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시에도 회덕과 진잠을 중심으로 농민군이 조직되어 양반가를 습격하는 일이 재연된 바 있다.

동학은 교조 최제우가 사형을 당한 후에 교세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1880년대 들어 삼남지방 각지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1883년에는 목천에서 『동경대전』 1천여 부를 목판으로 발간하였고, 공주와 연기 등지에서 많은 동학교도가 나왔다. 이때 회덕과 진잠 등 대전일대에도 동학의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동학교도들은 1892년 10월 공주취회를 열고 교조의 신원운동을 개시하였으며, 이어서 보은과 금구에서도 대규모 취회를 열었다. 보은취회에 진잠 접주 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대전지역의 교도들도 다수가 이 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의 1차 봉기에 회덕과 진잠의 교도들이 합세하였다. 회덕 지역의 동학군은 1894년 4월 8일 밤에 '수천 명'의 집단을 이루어 회덕현의 관아를 공격하여 불을 지르고 무기를 탈취하였다. 진잠 지역에서도 주민 상당수가 동학을 신앙하고 투쟁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였다. 회덕의 동학 접주로는 김복천과 강건회가 알려지며, 진잠의 접주로는 송석영과 박만종 등이 알려지고 있다. 대전 지역의 동학군은 호남의 김개남 부대와 합세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김개남 부대는 회덕과 신탄진에 주둔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잠을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청주성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로써, 진잠·회덕·신탄진 일대는 동학군의 중요 진지이면서 관군과의 전투지이기도 하였다. 1894년 10월에는 이들 동학군이 유성에서 관군 70여명을 몰살시키는 전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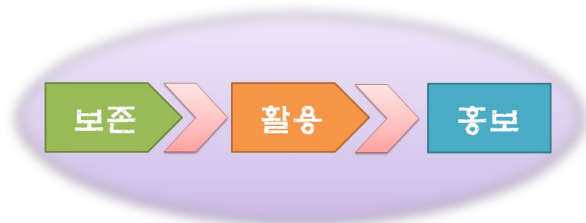


그림 25. 문화재 중점사업

한편 대전 지역은 이전부터 양반가와 농민들 사이에 갈등이 현저하였던 곳으로 평소 인심을 잃은 양반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좌의정을 역임한 신용조가 진잠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의 증손자가 농민군에 의해 음탕이 잘리기까지 하였다. 한편으로는 관군에 의해 동학군이 철저히 색출되어 처형되었다. 동학진압을 위해 '양호소모사'의 직을 띠고 내려 온 문석봉은 진잠에 주둔하면서 소모군을 이끌고 대전과 인근의 동학군을 진압하고 주민을 위무하는데 많은 공을 수립하였다. 진잠의 동학지도자 박만종이 그에 의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회덕의 강씨 일족도 접주 강건회와의 관련으로 여러 명이 관군에 의해 희생되기도 하였다.

한편 대전의 양반가들도 동학농민군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894년 4월초 진잠에서는 주민 수천 명이 모여 동학농민군의 집 9채를 헐어 버린 사건도 일어났다.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온 농민군들은 주민들에게 체포되어 처형되기도 하였다. 농민군은 반봉건과 반외세를 기치로 하여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나 재지 양반들은 이들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재지 양반들은 반외세의 의병투쟁을 전개하여 반일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농민군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니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계급간의 대립은 극복되지 못한 채 경술국치를 당하고 말았다.

### 3. 문화재 보존 방향

#### 1) 정책적 접근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1제1항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은 시도시자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화재보존기본계획의 내용은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사항,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그리고, 문화재 수리기본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 문화재수리원칙 \*

- ① 문화재수리는 기존의 양식, 기법, 주변환경도 보존하는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문화재가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존의 재료가 변경된 것이거나 당해 문화재의 양식에 맞지 않는 경우
- ③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④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 ⑤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 ⑥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문화재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 문화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 2)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점 사업



그림 26. 대전지역 문화재 보존중점 사업

### (1) 대전지역의 선비문화조사

#### ○ 대전지역의 유교문화

대전지역은 조선후기 호서 사림의 중심지역이다. 일찍이 사육신 중의 한 사람인 박팽년을 비롯하여 여러 충신, 학자 등의 자취가 남아 있어 유교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조선시대의 교육목적은 유교적 학식의 수양, 유교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유능한 관리 양성에 있었다. 초등교육은 서당이나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문자를 익히고 초보적인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각 고을에 설치된 향교에 들어가 소학과 사서 등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는데 지금의 회덕과 진잠에 향교가 설립되었다. 대전지역지방 사림의 뿌리는 사육신인 박팽년에 그 근원을 둘 수 있으며, 대전지역에 사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대전지역 유학은 이이의 학통을 이어 받은 김장생의 문하생이 많았다.<sup>15)</sup> 이렇듯 대전지역에서는 의리를 지키고 예절이 바르며,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이름 높은 선비들이 많이 나온 곳으로 선비의 고장이라 할 만하다.

#### ○ 대전지역의 유교문화재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지정문화재는 총 143건이며, 그 중에서 유자 및 유교문화 관련 문화유산은 총 69건으로 전체 지정문화재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문화유산만으로도 선비문화권임을 엿볼 수 있다.

15) 대전광역시, 2007, 『대전의 역사와 문화』, 대전광역시

구분		지정번호	명	소재지/수량	비고 (관련인물)
국가보물		209	동춘당	대덕구 송촌동	
		1215-4	이색영정	중구 오계동 한산이씨 대종회	
유형문화재	판각		송자대전판	동구 가양동 우암사적공원	
	건조물		쌍청당	대덕구 중리동	송유
			동춘선생고택	대덕구 송촌동	송준길
			남간정사	동구 가양동	송시열
			유희당 기공재	중구 무수동	권이진
			옥류각	대덕구 비래동	
			송애당	대덕구 중리동	김경여
			제월당 및 옥오재	대덕구 범동	송규렴, 송상기
			여경암 거업재	중구 무수동	권이진
			은진송씨 정려각	대덕구 범동	김경여
			고홍유씨 정려각 및 정려비	대덕구 중리동	송극기의처
			안동권씨 유희당종가	중구 무수동	권이진
	고문서		초려이유태유고	1책	이유태
			권준의 호구단자	1매	권준
			운부군옥	10책	남수문
			동북화의입의	1책9장	운동
			조천진장	1책	김상헌
			농암진적	4책	김창협
			설고시첩	1책	김상헌
	목판		만회집 단옹집 목판		권득기, 권시
			유희당 판각		권이진
			상제집략 판목		권송경, 권흠
			금암집 판목		송몽인
	불상		고산사불상		
	불화		고산사아미타불탱화		
무형문화재	음식		송순주	대덕구 송촌동	윤자덕
			연안이씨가 각색편	중구 유천동	이만희

표 21 . 대전지역의 유교관련 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명	소재지/수량	비고 (관련인물)
기념물			박팽년선생 유허	동구 가양동	
			김익희의 묘	유성구 가정동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지	중구 어남동	
			송현서원지	유성구 원촌동	
민속자료			송용역가옥	대덕구 송촌동	송병하
문화재자료	건조물		삼매당	동구 가양동	박계립
			창계송절사	중구 안영동	박팽년, 박심문
			도산서원	서구 탄방동	권득기, 권시
			문충사	동구 용운동	송병선, 송병순
			회덕향고 대성전	대덕구 읍내동	
			진잠향고 대성전	유성구 교촌동	
			김반 김익겸의 묘	유성구 전민동	
			박팽년선생 유허비	동구 가양동	
			취백정	대덕구 미호동	송규립
			기성관	유성구 원내동	
			수정재	서구 변동	
			월송재	동구 이사동	
			은진송씨 승지공파재실	동구 이사동	
			파평윤씨 서운공파 고택	서구 괴정동	
			봉소루	중구 석교동	
			이시직공 정려각		
			관동묘려		
	서화		유회당유물		
			서포 김만중 영정		
	고문서		동국사략		조선태종
			삼강행실도		조선성종
			청구풍아		김종직
			양성당 계영		김비
			박인년 교지		
			갑진 북정록		김수항
			문정고 왕고 간독		김상헌, 김광찬

표 22 .. 대전지역의 유교관련 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명	소재지/수량	비고 (관련인물)
	묘		박원상의 묘	동구 대별동	
			송준길의 묘	서구 원정동	
			김여온의 묘	서구 괴정동	
			유혁연의 묘	서구 평촌동	
			김정선생 묘소 일원	동구 신하	
	서고조물		어사 홍원모 영세불망비	대덕구 읍내동	
	유허		독립지사 김태원 생가 유허	동구 흥도동	
	목판		송씨 양세 정려	중구 대사동	
*			회덕향안 회덕향약 향사록 청금록		

표 23. 대전지역의 유교관련 문화재

### 사업개요

- 대전지역의 선비문화의 보존상태 조사를 통해 선비문화 활용전개

### 목표 및 기대효과

- 대전지역의 선비문화재 분포현황 조사를 통한 전국의 유교문화 분포도 작성에 일조
- 선비문화재에 대한 보존현황 조사를 통한 향후 선비문화의 개발가능성 측정
- 선비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정비복원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존시스템 구축
- 산물에 비취진 역사적 사건을 시각화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가능

### 추진방향 및 계획

- 선비문화재 분포지도 작성
- 선비문화재의 재질별 안전진단표 작성
- 문화유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정기적 사진촬영 및 기록화)
- 선비문화 소책자제작
- 대전지역을 선비문화권으로 위상정립
-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개발 및 홍보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선비문화(재) 분포현황조사 - 선비문화(재) 재질별 보존상태조사 - 소책자 제작 계획 수립
중 기	- 보수정비계획수립 - 문화(재) & 유적지 정비 - 보존처리내역 안내판을 통한 시각화(교육적 효과상승) - 소책자 발간
장 기	- 지속적인 모니터링(조사, 사진촬영, 기록 등)

##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의 보존·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
- 종교적인 차이에 의한 시민의 인식이 다름

### (2) 체계적인 산성정비

산성정비는 국내에서 대전지역의 보문산성 정비를 시발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산성들이 학술조사를 통해 복원 및 정비되어 가고 있다. 산성은 과거의 군사적 체계를 엿볼 수 있으며 많은 역사적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복원 정비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소지한 문화적 자원이다.

- ① 국내·외 사례조사
- ② 명활산성

명활산성은 사적 제47호로 경상북도 경주시 천궁동, 보문동 일원에 위치하며, 전체 9.7km(석성 4.7km, 토성 5.0km) 규모의 산성이다. 명활산성 종합정비계획으로는 단기(2008~2017)적, 장기적(2018~2027)로 단계별 투자 및 정비 계획을 설립하여 대략 400억원을 들여 종합정비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명활산성을 종합정비를 통하여 잊혀진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교육적·관람적·관광적 활용 효과 기대를 창출하고, 기존 경주 역사문화자원 및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관광네트워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sup>16)</sup>.

16) 경주시, 2007 『명활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경주시

#### ㉞ 보문산성

보문산성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기념문 제10호로 백제시대의 산성이다. 면적은 7,180m<sup>2</sup>으로 대전광역시의 복원, 정비 계획에 따라 1990년 3월 12일부터 4f 20일까지 윤무병(尹武炳)교수를 비롯한 조사단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 ㉟ 공산성

공산성은 공주 금성동, 산성동에 걸쳐 공산(公山)에 축조된 고대 성곽으로 산 전체가 성곽 및 관련 시설로 이루어진 곳이다. 웅진성, 쌍수산성, 공산산성, 공주산성 등으로 다른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공산성은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오다가, 1985년에 사적공원으로 재지정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1980년부터 1993년까지 계속된 성내의 유적 발굴조사와 정화 정비는 공산성의 역사적 의의를 재각인시켜주기도 하였다.

##### ○ 대전지역의 산성개요

산성은 재료에 따라 돌로 쌓은 석성, 흙으로 쌓은 토성, 흙과 돌로 쌓은 토석혼축성, 나무로 막은 목책성이 있고, 성의 위치에 따라 평지에 만들면 평지성, 산에는 산성, 국경지대에 길게 쌓으면 장성이 된다.

##### ○ 대전지역의 산성현황<sup>17)</sup>

대전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성이 많은 편으로 약 30여개의 성이 있는데 대부분이 석성이며, 산성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대전지역산성들의 분포 상태를 보면, 산성 가까운 곳에 쌓아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적의 공격에 대비할 목적으로 쌓았음을 뜻한다. 이 산성들은 지리적인 위치와 출토 유물로 볼 때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대전지역의 백제 산성은 웅진천도 직후인 5~6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만들어 졌다. 이 지역의 백제산성은 크게 계족산·식장산계와 갑천수계의 둘로 나눌 수 있다.

17) 대전광역시, 2007, 『대전의 역사와 문화』, 대전광역시

No	계족산·식장산계	비고	No	갑천수계	비고
1	계족산성		1	안상동 산성	
2	성치산성		2	소문성	
3	노고성		3	금고동 산성	
4	마산동 산성		4	연충동 산성	
5	견두성		5	구성동 산성	
6	이현동 산성		6	유성산성	
7	장동 산성		7	사정동산성	
8	질현성		8	흑성동 산성	
9	고봉산성				
10	백골산성				
11	갈현성				
12	삼정동산성				
13	계현성				
14	소호동 산성				
15	보문산성				
16	성북동산성				

표 24 대전지역 산성현황

### 사업개요

- 산성을 안전진단을 실시 및 활용여부 판단을 통한 장기적인 종합정비계획수립

### 목표 및 기대효과

- 석재의 안전진단실시로 산성의 안정성 평가
-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산성의 암석학적 학술연구 결과 도출
- 안전성여부 판단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재활용
- 사적공원지정으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

## 추진방향 및 계획

- 문화재보호 원칙에 따라 원형 보호보존을 기본원칙으로 함
- 석재에 안전진단실시
- 산성의 열화상태도 작성
-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암석학적 연구
- 대전지역산성간의 연계관계에 대한 조사
- 개발 및 복원 가치가 높은 산성 선별
- 종합정비계획 수립
-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종합정비
- 장기적으로 학술적 자료로 종합정비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지역 산성분포도 작성</li> <li>- 산성정비사례 조사</li> <li>- 산성 비파괴 안전진단실시</li> <li>- 과학적분석을 통하여 학술자료 축적(군사체계, 산성축조방법 등)</li> <li>- 산성 활용여부 판단</li> </ul>
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계적인 산성정비(선택)</li> <li>- 공원정비 가능 산성 지정 후 공원정비</li> </ul>
장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정비 계획수립 및 시행</li> <li>- 휴식공간, 운동공간, 문화공간,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li> </ul>

## 현황 및 문제점

- 30여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량

### (3) 선사유적 정비

- ① 국내·외 사례조사
- ㉠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 목 : 국가사적 제 268호  
 소재지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28-1번  
 지 일원, 고능리  
 지정일 : 1979. 10. 2.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을 대표하는 이 유적지는 1978년 겨울 한탄강 유원지에 놀러 왔던 미군 병사에 의해 지표에서 석기가 발견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내에는 구석기 유적관과 자료관 등 관람시설과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야외 조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배치되어 구석기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지



원삼국시대 제주도를 대표하는 마을유적으로 제주시 동쪽에 위치한 삼양동의 동서 1.2~1.5km, 남북 0.5~0.6km의 3만여 평 범위에 위치한다.

200여 기가 넘는 주거지로 구성된 마을 유적지로 지금까지 조사된 남한 최대의 마을 유적지 중의 하나로서 원삼국시대에 초기복합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주도에 원삼국시대 집자리가 남한지방에서 청동기시대에 유행하였던 송국리형주거지라는 점에서 집자리 짓기 방식의 전통이 남한에서 제주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암사동 선사주거지



암사동 선사주거지(岩寺洞先史住居址)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시대의 주거 유적지이다. 대한민국 사적 제267호이다. 이 선사시대의 유적은 78,793㎡의 넓은 선사공원 내에 복원된 움집과 움집터를 그대로 둘러싼 제1박물관과 멀티미디어와 체험학습을 위한 제2박물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곳 유적지에서 3개의

문화층으로 구분되는 지층이 발견되었는데, 상층에서는 백제의 옹관과 건물지가 출토되었고, 중간층에는 민무늬토기, 반달돌칼, 빗살무늬토기 등 100여 개의 수혈 거주지가 출토되었다.

1988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현재는 큰 공원 안에, 2개의 전시관과 움집 10동, 매점과 관리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암사동출토품 72점을 비롯해 총 408개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다.

㉔ 대전선사유적지



종 목 : 시도기념물 제28호 (대전)  
 소재지 : 대전 서구 둔산동 산2-2  
 지정일 : 1992.10.28  
 수 량 : 18,750m<sup>2</sup>

둔산 선사유적지는 지난 91년 둔산 신도시 개발시 국내에선 처음으로 한 곳에서 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의 집터와 유물이 발굴돼 1992년 대전시 기념물 28호로 지정된 후 1만8750m<sup>2</sup>의 부지에 선사시대 움집과 고인돌 등을 전시해 왔다.

둔산지역의 선사유적은 이 지역에서 갑천 주변의 얇은 구릉에 넓은 농토와 풍부한 물을 배경으로 많은 주민이 살았던 사실을 알려주며, 대전의 선사문화 갈래와 계통을 확인하는데 좋은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㉕ 일본 나고야유적



일본 규슈 사가현에 자리잡은 나고야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침략의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다. 부산에서 180km정도 떨어진 곳은 원래 인구 2000명의 자그마한 시골 항구였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의 다이묘들과 함께 조선 침략을 기도하면서 한때 30만명이 넘는 군사가 이곳에 주둔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929년 사적으로 1955년에 특별사적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나고야 성은 10년 동안 약 100억을 투입, 현재까지도 복원과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나고야성의 복원방법은 역사의 흐름을 그대로 간직한 채 되도록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나고야성 박물관은 과거 성 축조 기술

그대로를 이용, 성곽을 해체해 다시 쌓는 방법으로 유적을 복원하고 있다. 1592년 축조된 나고야성 가운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무너져 내리고 멸실된 곳은 인위적으로 당시의 모습을 되살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훼손을 막는 복원 방식은 일본 내에서도 새로운 시도로 평가 받고 있다.

#### ㉞ 일본 요시노가리유적



사가현 요시노가리 유적은 일본 야요이 시대의 원시국가 변천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90년 국가사적으로 91년에는 특별사적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이곳은 그동안 문헌상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일본 초기국가 야마타이 코쿠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발견 당시 일본내에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현재 일본의 역사공원으로는 아스카에 이어 두번째인 이곳은 면적은 117ha 일본내 최대 환호취락유적인 이곳은 지난 1986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된 이래 관리센터와 북내곽 일부와 환호, 고상창고 등이 원형 복원됐다.

요시노가리는 과거의 역사적 유물을 현실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요시노가리 유적 중 복원이 완료된 북내관과 대규모 환호의 복원 상태는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내는 원형복원의 한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 ○ 대전지역의 유적<sup>18)</sup>

대전의 선사문화(문자가 없어 역사를 기록할 수 없었던 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나뉘어 볼수 있다. 대전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이다. 대전 지역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청동기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사유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18) 대전광역시, 2007, 『대전의 역사와 문화』, 대전광역시

No	유적명	No	유적명
1	용호동 유적	17	월평동 유적
2	구즉동 유적	18	북룡동 유적
3	상서동 유적	19	탄방동 유적
4	용산동 유적	20	탄방동 남선공원
5	탑립동 유적	21	용계동 지석묘
6	신대동 유적	22	괴정동 유적
7	사성동 지석묘	23	비룡동 선사유적
8	노은동 선사유적	24	도안동 원당 지석묘
9	구성동 유적	25	대정동 유적
10	노은동 선사유적	26	교촌동 칠성당 지석묘군
11	장대동 유적	27	원내동 내동리 지석묘
12	궁동 유적	28	관저동 신선아 지석묘
13	둔산동 둔산선사유적	29	복수동 유적
14	오정동 유적	30	대사동 보문산 유적
15	송촌동 유적	31	가오동 유적
16	비래동 지석묘군	32	문화동 유적

표 25 대전지역 선사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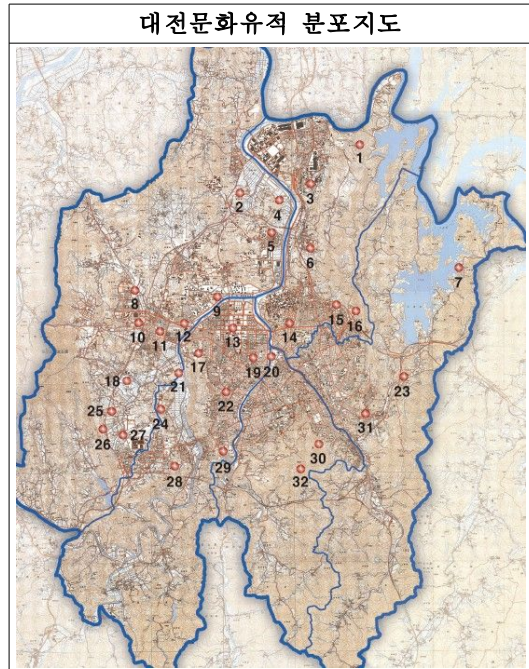


표 26 대전지역 선사유적지 분포도

## 사업개요

- 대전지역에 분포한 선사시대 유적 및 유구를 체계적으로 정비

## 목표 및 기대효과

- 사장되기 쉬운 선사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학술적 자료로 영구 보존
- 교육적 및 학술적 자료로 활용
- 시대별 유적 및 유구 체계적 관리



## 추진방향 및 계획

- 구석기 시대 유적인 용산동, 노은동, 용호동, 대정동 유적의 활용가능 여부 확인(관계 전문가의 자문)
- 신석기 시대 유적인 둔산유적, 관평동 유적, 송촌동 유적 등의 활용가능 여부 확인(관계 전문가의 자문)
- 청동기 시대 유적인 비래동, 둔산동, 용산동, 가오동, 노은동, 궁동 괴정동, 탄방동, 원내동, 문화동 까치고대유적 등의 활용가능 여부 확인(관계 전문가의 자문)
- 철기 시대 유적인 오정동, 구성동 움집터, 송촌동, 대화동 궁동 토광묘 등의 활용가능 여부 확인(관계 전문가의 자문)
- 활용가능 유적 선별 후, 지표 및 발굴 조사자료 검토
- 기존 유적 및 시설 장비 점검
- 유구보존방법 검토
- 유적 정비
- 선사시대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 설립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발굴 복원 및 사적지 주변정비
중 기	- 유적 및 유구 보존방법 연구 - 각 유적별 적절한 보존방법 선택
장 기	- 선사유적지 체험관 설립계획수립 - 체험관 설립 실시 및 토지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선사유적의 자료가 학술적 및 교육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음.

### (4) 동산문화재 보존현황조사

## 사업개요

- 재질별 문화재 보존현황조사를 통하여 동산문화재의 보존지침 및 방향 수립

## 목표 및 기대효과

- 정기적인 보존관리로 문화재의 보관환경개선
- 문화재의 열화로부터 사전예방
- 시민에게 보존관리방법 교육
-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 홍보

## 추진방향 및 계획

- 재질별 문화재 손상진단표 및 보존상태표 작성
- 보존처리여부 체크 다이어리 작성  
(전문가가 아닌 유물 소장자가 직접 유물 체크할 수 있도록함)
- 손상 및 열화가 심한 경우 보존처리 실시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문화재 보존환경 개선(적정 온·습도 유지)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대전지역 동산문화재 분포현황조사 - 재질별 손상상태 조사 - 재질별 보존처리 여부 확인
중 기	- 보존처리 실시
장 기	- 소장자에게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교육실시 (강의, 보관관리 책장, 다이어리 정검 등)

## 한계 및 문제점

- 개인소장유물이 많음

(5) 건조물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훼손당하는 문화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응급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재의 큰 손실 예방

## 목표 및 기대효과

- 자연재해로부터 문화재보호
- 안전하게 후손에게 전승
- 긴급한 응급조치 지침 수립

## 추진방향 및 계획

- 대전지역 목재문화재의 보존현황조사
- 목재문화재의 생물학적 열화양상조사
- IPM 시스템 설치
- 화재발생시 구제여건 조사(소화기설치 유무 및 소화방법 교육)
- 문화재 관리인에게 정기적인 안전소방교육 실시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보존처리 실시대전지역의 건조물 문화재 분포현황조사 - 보존처리 실시보존여건 조사
중 기	- 보존처리 실시IPM 시스템 설치 - 보존처리 실시목재문화재 보존처리
장 기	- 보존처리 실시정기적인 안전소방교육

## 한계 및 문제점

- 소방서와 멀리 위치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 요망

(6) 자연재앙에 대한 응급조치 안내판 제작

① 국내·외 문화재 피해사례조사<sup>19)</sup>

19) 강대일, 2007 『문화재환경학』, 가람



그림 27.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화재 전



그림 28.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화재 후



그림 29. 낙산사 동종. 화재



그림 30. 낙산사 동종. 화재 전, 후



그림 31.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인하여 카마쿠라 대불의 피해



그림 32. 1923년 관동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카마쿠라 대불



그림 33. 1966년 피렌체 대홍수



그림 34. 대홍수 후 고문서류

## 사업개요

- 자연재앙에 대비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응급방법 시민에게 알림

## 목표 및 기대효과

- 시민에게 문화재보호에 대한 경각심 일깨워줌
-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안전하게 전승

## 추진방향 및 계획

- 각 문화재에 대한 자연재해 종류 조사
- 자연재해에 대비한 각 재질별 응급처리 방법 수립
-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 응급처리방법 안내판 제작
- 각종방법을 통한 홍보실시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응급처리 지침 수립
중 기	- 안내판 제작/소책자 발간
장 기	- 시민교육

## 한계 및 문제점

-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음.

#### 4. 문화재 활용방향

최근 문화재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정책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재보호 정책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당위성에 중점을 두으로써 문화재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용과 지역의 자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는데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재는 주로 교육적,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문화재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재인식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려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sup>20)</sup>

서양의 문화재 보존역사에서 문화재의 활용 시발점은 아마도 고대미술품의 전시에서 찾을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미술품은 왕실 혹은 귀족의 전시물로 재사용되거나 건축물의 장식부재로서 일부 사용되기도 했다. 역사적 건조물의 보호와 활용의 문제는 1904년 마드리드 선언에 처음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기념물들이 '죽은 기념물'과 '살아있는 기념물'로 분류되어 죽은 기념물은 동결보존을 하고, 살아있는 기념물은 현황에 맞게끔 개조하는 동태보존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활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엿보이기 시작한다.<sup>21)</sup>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서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향유를 위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유산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문화재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활용이 보존을 촉진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1) 정책적 접근

문화재 활용과 관련되는 법령에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법 등이 있다.

##### 2) 문화재 활용을 위한 중점 사업

20)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가이드북』, 문화재청

21)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가이드북』, 문화재청



그림 35. 대전지역 문화재 활용중점 사업

### (1) 선비문화촌 조성

#### ① 국내·외 사례조사

##### ○ 경북영주 선비문화촌

조선시대의 전통가옥을 복원하고 생활상을 재현하여, 유교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영주시가 건설한 테마파크이다.

조선시대 선비와 상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통 민속마을로, 1997년 7월 선비촌 건설을 위한 실시 설계를 마치고 1997년 12월 17일 1단계 1차 공사가 착공된 뒤, 여러 차례 나누어 진행된 공사를 거쳐 2004년 9월 22일 문을 열었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354번지 일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근처에 소수서원, 청소년수련관, 소수서원박물관, 부석사, 풍기온천, 소백산 등의 관광지가 있다. 죽계천(竹溪川)에 접한 논을 흙과 돌로 메워 마련한 1만7,459평(57,717㎡) 부지에 들어선 선비촌은 문화쇼핑영역, 전시숙박영역, 휴게영역, 교육영역, 편익시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선비촌의 핵심을 이루는 12채의 고택은 영주시 관내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던 기와집과 초가집의 본디 모습을 되살려 지었으며 입신양명(立身揚名), 거무구안(居無求安), 우도불우빈(憂道不憂貧) 등의 선비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만죽재 고택, 해우당 고택, 김문기 가옥, 인동장씨 종택, 김세기 가옥, 두암 고택, 김상진 가옥 등 기와집 7채와 장휘덕가옥, 김퇴진 가옥, 김규진 가옥, 두암 고택 가람집, 이후남 가옥 등 초가집 5채는 가족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도록 개방된다. 또 고택에 따라 옷놀이, 제기차기, 장작패기, 지게지기, 새끼꼬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고택 12채 외에 정자, 물레방아, 강학당, 원두막, 대장간 등의 민속시설과 강학시설, 음식점, 주차장 등도 마련되었다.

## 사업개요

- 선비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선비문화 및 전통문화를 이해

## 목표 및 기대효과

- 선비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통한 개성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 문화, 경제, 생활이 어우러진 중심지역에 커뮤니티형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 기회제공
- 선비의 정신을 통한 어린이에게 유교적 정신 및 자세 교육
-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에 대한 새로운 조명

## 추진방향 및 계획

-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비문화촌에 대한 기대치 조사
- 주제 및 구성요소와 입지여건과의 조화
-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지역으로 거듭
- 선비의 의식주 체험 중심으로 문화촌 형성
-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인 민속문화의 적절한 조화
-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적 효과 증대
- 세시풍속체험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선비문화 조사(유형&무형) - 문화촌 설립 계획 수립(문헌적 자료조사)
중 기	- 문화촌 설립을 위한 토지확보 - 문화촌과 기념관, 홍보관 건립
장 기	- 문화촌 홍보

## 한계 및 문제점

- 타지역문화(경북영주, 안동 등)와 차별화 필요

(2) 무형문화재 체험촌 조성



구분	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유형	비고 (관련인물)
무형 문화 재	1	웃다리 농악	중구 대흥동	칠채가락	류창열/보존회
	2	대전의 앓은굿	중구 문창1동	안택굿 외/설경	신석봉/송선자
	3	유천동 산신제	중구 유천동	산신제	유천동 산신제보존회
	4	장동 산디마을탐제	대덕구 장동	탐제	장동산디마을탐제보존회
	5	불상 조각장	유성구 탑립동	불상조각	이진형
	6	소목장	중구 어남동	소목	방대근
	7	매사냥	동구 삼괴동	사냥	박용순
	8	송손주	대덕구 송촌동	술제조	윤자덕
	9	연안이씨 가각색편	중구 유천동	떡제조	이만희
	10	단청장	중구 오류동	단청	이정오
	11	악기장	유성구 원촌동	북메우기	김관식
	12	들말 두레소리	대덕구 목상동	소리/선소리	보존회/고석근
	13	가곡	동구 가양동	여창가곡	한자이
	14	승무	동구 구도동	승무	송재섭
	15	초고장	동구 낭월동	초고장	양중규

표 27 대전지역의 무형문화재

### 사업개요

◦ 음식, 공예, 무예, 놀이 등 무형문화재를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전승 및 홍보

### 목표 및 기대효과

-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 계승·발전
-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발
- 인터넷문화를 벗어난 체험문화를 청소년에게 적극 권장
- 체험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적 교육효과 기대
- 무형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통해 문화촌으로 발전

## 추진방향 및 계획

- 민속음식
  - 송송주를 대전시의 특화상품(술) 지정
  - 연안이씨 가각색편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아침먹기 프로그램 개발
- 민속무용
  - 정기적인 승무공연 프로그램 제작
- 민속신앙
  - 탐제를 이용한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홍보
- 민속공예
  - 민속공예기법 전승
- 민속놀이
  - 민속놀이 공연 개최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체험문화 수요 조사
중 기	- 각종 민속문화 공연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장 기	

## 한계 및 문제점

-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저조
- 무형문화재의 전승발전이 체계적이지 못함

### (3) 대전문화의 스토리텔링

#### 사업개요

- 대전지역의 설화와 민요를 대중적인 문화(뮤지컬, 연극)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 ○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란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라 할 수 있고, 게임과 디지털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 드라마, 웹 애드, 웹 에듀테인먼트 등이 모두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목표 및 기대효과

- 어려운 역사를 대중적으로 다가감으로 교육적 효과상승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및 계획

- 시민들을 통한 구전설화 조사
- 옛이야기 소재 조사
- 옛이야기를 주제로 한 뮤지컬, 연극 등의 무대공연
- 옛이야기 전용 문화관 설립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문헌적, 구전적 자료 조사
중 기	- 뮤지컬 및 연극 기획 - 뮤지컬 및 연극 공연
장 기	- 전용문화관 설립

### 한계 및 문제점

- 현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해부족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창작소재에 대한 지원에 비해 전통적 소재에 대한 예산 지원부족

#### (4) 문화인 생애촌 조성

### 사업개요

- 역사적인물 지정 생애촌 조성

## 목표 및 기대효과

- 조상들의 슬기 및 지혜를 대중에게 전달
- 역사적 교육자료로 활용
- 신채호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민족정신 고양

## 추진방향 및 계획

- 단재 신채호 선생의 생가지(중구 어남동)의 보존 및 정비
-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후로 분류하여 그의 대표적 생애를 이미지화 작업
- 문화재와 역사적 인물의 생애와 접목한 보존
- 충북 기념물 제90호 단재 신채호 선생 사당 및 묘소(청원군 낭성면 귀래리 위치)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생가지 종합 정비계획 수립
중 기	- 사당 및 묘소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신채호 캐릭터 및 이미지 개발
장 기	- 향후, 전시관 설립계획 수립

## 한계 및 문제점

- 청원군은 2001년 신채호선생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충청북도는 신채호기념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음

### (5) 민속미술 경연대회

## 사업대상

- 민속미술(시대별, 화풍) 경연대회

## 목표 및 기대효과

- 역사적 화풍에 대한 이해도 상승효과
- 청소년의 예술적 능력 고취
- 시대별 화풍에 대한 표준화 자료 구축에 일조
- 지류·벽화·회화문화재 복원가 인적자원 발굴

## 추진방향 및 계획

- “내가 선사시대 산다면” 주제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암각화 공모전
- 고려시대 화풍 경연대회(특정화가 화풍 따라잡기 경연대회)
- 조선시대 화풍 경연대회(특정화가 화풍 따라잡기 경연대회)
- 풍속화 경연대회
- 모사 경연대회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을 대상으로하여 수상작 상품 및 상금제공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기간
단 기	- 각종 민속미술경연대회 기획 - 민속미술경연대회 시행	
중 기	- 민속화 전시회 기획 및 시행	
장 기		

## 한계 및 문제점

- 민속미술에 대한 국부적인 관심

### (6) 문화재 활용

#### ① 국내·외 사례조사

#### ㉠ 세종대왕릉 문화나눔 큰잔치

한글과 컴퓨터는 영릉의 가치와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공연을 추진하게 되었다. 즉 왕릉이라는 공간의 입지조건과 세종대왕이라는 역사적 인물에서 착안하며, 매년 세종대왕 탄신일(5.15) 주간에 맞춰 토요일, 일요일 2차례에 걸쳐 영릉에서 문학작품과 대중이 친숙하게 만나는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시민들

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써 영릉을 문화공간을 새롭게 바꿔자는 취지다. 이는 무엇보다 '문학'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이기 때문이며, '작가와의 만남', '시낭송', '시와 함께 하는 복합음악장르극(야간공연)', '문학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문학카페', '문학라디오 현장방송'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영릉에서 펼쳐지면서 많은 관람객들과 함께 했다.

세종대왕탄신 주간을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개최함으로써 세종대왕릉을 새로운 문화명소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향후 매년 세종대왕탄신주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최된다면 세종대왕릉이라는 명소의 의미와 가치를 살린 훌륭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되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광주향교

광주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광주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89년)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유서깊은 교육기관이다. 광주향교는 조선시대 광주지역의 중추 교육기관이자 주민 교화기관으로써 그 기능을 현대적 의미에서 계승 발전시켜 전통문화 예절 교육, 충·효·예 1일 캠프, 외국인 며느리 예절 교육, 대학생 전통 성년식 거행 등 우리 것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엄격한 유교적 전통과 의식이 중시되는 향교가 시민과 청소년의 역사문화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좋은 사례이다.

#### ㉡ 해미읍성

충남 서산 해미읍성은 1963년 사적 제 116호로 지정된 곳으로 서해안 방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조된 곳이다, 읍성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공서, 민가의 철거와 성곽 및 객사 등의 복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옛 읍성의 모습을 점차 되찾고 있다. 해미읍성은 국내 유일의 병영을 테마로 한 축제로서 조선시대 병영체험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사회·문화 생활상을 직접 느낌으로써 체험과 교육중심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병영체험을 통하여 재미와 함께 국방의무의 신성함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군복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도 있다.

해미읍성 축제는 병영성으로써의 특색을 살려 충청병마절도사영 출정식, 교열훈련, 진법훈련 등의 병영 이벤트와 조선시대 병영학교, 전주교 순교 성지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해미읍성 축제는 해미읍성의 역사성을 살려 다양한 역사문화 체험 이벤트를 마련함으로써 주민과 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해미읍성 인근에는 해미 순교성지, 개심사, 서산 마애삼존불, 천수만 철새도래지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다.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는 읍성의 복원과 함께 읍성의 본래의 기능과 성격을 살려 다양한 문화재 활용 이벤트를 개발한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 ㉔ 오르세 미술관

파리 센 강변에 위치한 오르세 미술관은 바로 건너편의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파리의 기념비적 건물로서 유명한 건물이다. 원래 오르세 미술관은 기차역으로 쓰이던 아르누보 양식의 구 오르세 역을 1977년부터 개조공사를 시작하여 1986년 개관하게 되었다. 이곳에 전시된 회화 작품은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걸작들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미술품들로 1층에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밀레의 만종, 이삭줍기와 마네의 파리 부는 소년 등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프랑수아, 벨기에, 글래스고 등지의 아르누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3층에는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들을 비롯하여 마네, 드가, 모네, 고흐 등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 ㉕ 로마시대 원형경기장

로마시대에 세워진 많은 유적들이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이교도의 유적이라 파괴·훼손되고, 변형되기도 하였지만, 기술적 우수성 등으로 2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사용되거나 활용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탈리아 베로나에는 로마시대에 건설된 원형경기장이 잘 남아있다. 남아있는 원형경기장으로는 3번째로 큰 곳으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잘 보존된 원형경기장 중의 하나이다.

베로나에서는 1913년부터 원형경기장을 활용하여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100년이 다되어가는 이 유서 깊은 오페라 페스티벌에는 도밍고, 파바로티, 마리아 칼라스 등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이 무대에 섰으며 아이다, 토스카, 나부코 등의 오페라가 공연되고 있다. 베로나의 오페라 페스티벌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베로나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2천년 전의 로마시대의 유적이 화려하고 웅장한 오페라의 무대로 오늘날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

#### ㉖ 지부리 미술관

지부리 미술관은 일본의 대표적인 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신의 작품과 소품 등을 전시물로 활용하고 또 자신의 애니메이션 작품에 바탕을 둔 다양한 놀이 시설 구성과 대형 조각물 전시 및 이를 응용한 판매 상품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사설 미술관이다. 이 사례는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폭넓은 사회적 의견을 바탕으로한 국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해석 여부에 따라서 지부리 미술관처럼 현대에 성립된 유형의 문화유산 혹은 해방 이후 유행했던 트로트와 같은 무형의 문화유산을

문화재 혹은 문화유산의 범주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국가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문화 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업대상

- 문화재(향교, 근대문화재 등)를 현대적 수요에 의해 활용

### 목표 및 기대효과

- 역사적 산물과 현대적 자료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의미 부여
- 활용을 통한 보존효과

### 추진방향 및 계획

- 활용가능성 평가
- 활용방향 설정
- 활용문화재 선정
- 종합정 정비(기록화, 안정성테스트, 훼손조사 등)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대전지역문화재 활용수요조사
중 기	- 활용가능 문화재 선정 및 평가
장 기	- 종합정비

### 한계 및 문제점

- 현대적인 요소로 완전한 탈바꿈 우려



## 5. 문화재 홍보방향

### 1) 문화(재) 홍보를 위한 중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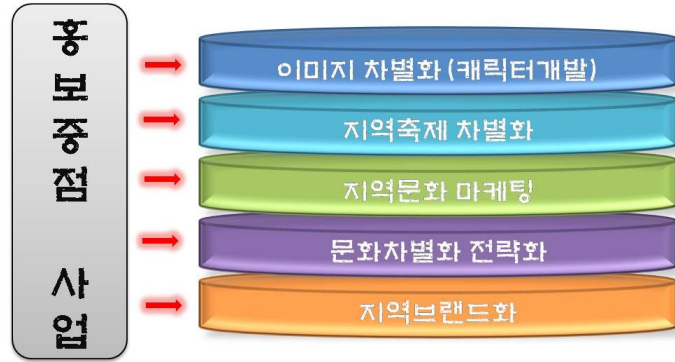


그림 36. 대전지역 문화재 홍보중점 사업

대전의 문화(재)는 선사문화에서 출발하여 삼국시대의 삼국문화,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불교문화,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강화된 선비문화, 근세의 서구 문화 등을 계승·발전시켜 온 복합적, 통합적인 문화로서 특성을 지닌다.

#### (1) 대전지역 문화(재)의 캐릭터 개발

##### 사업개요

- 대전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대전문화(선비문화)를 캐릭터를 이용한 적극적 홍보

##### 목표 및 기대효과

- 대전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 대전문화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경제적 이익 발생
- 문화의 도시로 재거듭남으로써 도시에 대한 재인식
- 선비문화를 통한 교육적 열의 상승
- 어린이들에게 역사적 사건을 쉽게 풀이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상승

## 추진방향 및 계획

- 대전문화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계획수립
-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 유도
- 캐릭터를 사용하여 문화(재)설명 DVD제작
- 캐릭터를 이용한 문화테마촌 설립(ex: 제주도 소인국테마파크)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캐릭터 공모전 - 캐릭터 선정
중 기	-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방안 계획 - 캐릭터 테마촌 설립계획
장 기	- 문화캐릭터를 이용한 대전지역 문화재 소개 테마촌 설립(부지선정, 부지확보, 설립, 학예사채용 등)

## 한계 및 문제점

- 캐릭터 문화테마촌 설립할 부지 선정에 어려움

### (2) 지역축제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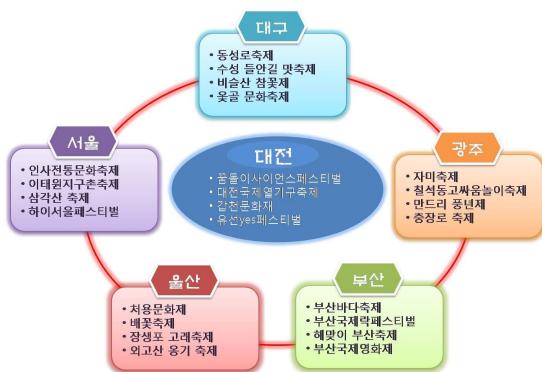


그림 37. 각 시별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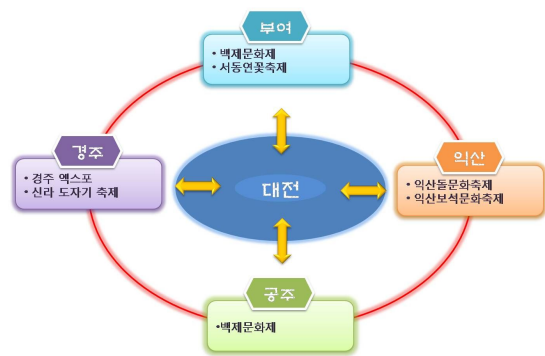


그림 38. 고도지역 축제

## 사업개요

-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축제와 연계한 축제 개발과 문화관광 상품으로서의 축제를 개발

## 목표 및 기대효과

- 대전지역만의 개성 있는 축제 개최
-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
- 휴일에 시민들에게 휴식을 보내는 시간 및 공간 제공
- 홍보를 통한 대전지역의 특색 홍보

## 추진방향 및 계획

-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축제 발굴(문헌조사, 구전조사 등)
- 대전시의 종합예술축제 현황 조사
- 기존 축제의 업그레이드 및 연계한 새로운 축제 개발
- 고도지역 축제(백제문화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축제의 문화관광 상품화 추진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문헌조사, 구전조사를 통해 역사적 축제 발굴 - 축제 현황조사
중 기	- 축제개발 및 리모델링 계획수립 - 대전축제만의 상품개발
장 기	-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실시 - 축제개최

## 한계 및 문제점

- 재정적 예산부족

### (3) 지역문화마케팅 전략

## 사업개요

- 지역문화마케팅 전략 특성화

## 목표 및 기대효과

- 대전문화(선비문화)의 정체성 발굴 및 정비
- 무형의 전통, 문화의 특성과 독창성을 발굴 보존
- 문화가 소재하는 지역에 대한 장소적 매력 제고

## 추진방향 및 계획

- 청소년을 위한 문화진흥센터 설립(문화(재)보호 자원봉사활동 등)
- 선비문화의 체계적·종합적 정비
- 무형문화재의 홍보를 통한 전승발전 도모
- 전국 각지역 대학생을 위한 문화공간 창출(인적·물적 교류의 장 마련)
- 지역문화 네트워크형 관광벨트 와 관광코스 개발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문화진흥센터 설립계획 수립(부지선정, 확보, 인적자원확보 등)
중 기	- 선비문화 종합정비
장 기	- 문화진흥센터 설립

## 한계 및 문제점

- 지역간의 협의필요

### (4) 문화차별화 전략화

## 사업개요

-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시설 재정비

## 목표 및 기대효과

- 지역 경쟁력 강화
- 문화시설(숙박, 음식 교통 등)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및 계획

-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 나온 원작 산출물을 가공해 상품제작 및 판매 전략 개발
- 지역의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을 적절히 조합하고 또한 상속자원과 신규창출자원을 적절히 엮어 지역 특유의 제품 믹스를 통한 지역차별화
- 웰빙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음식 상품개발
- 문화시설(숙박, 음식 교통 등) 개선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문화소재원형 상품선정 및 개발 - 문화시설 환경조사
중 기	- 유·무형자원 믹스 제품 개발 및 상품화 - 문화시설 개선
장 기	- 판매를 통한 지역 홍보

## 한계 및 문제점

- 문화시설 개선에 따른 개인자산침해 우려

### (5) 지역의 브랜드개발

- ① 타지역 지역브랜드 조사



그림 39. 각시도와 고도지역의 대표브랜드

세계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가면 그곳의 풍습과 특색이 있다. 한국을 생각하면 김치, 불고기, 한복 등 여러 콘텐츠를 떠올릴 수 있다. 이렇듯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던 각각의 대표성 브랜드가 있게 마련이다. 고도지역인 부여는 곶뜨레 농산물, 백제금동대향로, 백제문화제 등이 대표브랜드화 되어 있으며, 공주도 고마나루, 무령왕릉, 백제문화제, 밥 등이 브랜드화 및 상품화 되어 유통 및 홍보되고 있다. 고도지역 뿐 아니라 각 시·도·군별마다 각각의 특색브랜드가 있다. 이에 대전지역에서는 기존에 대전엑스포의 이미지들에 박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문화재를 이용한 대표브랜드를 개발하여 대전을 홍보하므로 해서 발생하는 대전지역이 선비문화의 도시, 문화의 도시임을 각인시키는 이미지 브랜드화 사업이 필요하다.

### 사업개요

- 지역 브랜드 개발로 대전지역 이미지 홍보

### 목표 및 기대효과

- 대전지역을 전국적·세계적으로 홍보
- 살기 좋은 도시 인식확산
- 문화관광도시로 이미지 전파

### 추진방향 및 계획

- 타지역 브랜드 벤치마킹(농산물, 문화상품, 문화제, 역사적 사건 등)
- 대전지역 브랜드 소재 확보

### 세부일정

분류	사업내용
단 기	- 타지역 브랜드 벤치마킹 - 소재조사
중 기	- 소재 확보
장 기	

### 한계 및 문제점

- 타지역의 브랜드와 차별화 어려움
- 농산물, 문화제, 문화상품 등으로 브랜드 소재 제한적

## IV.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문화(재)에게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열화의 원인은 바로 국민들의 무관심일 것이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문화(재)를 국민들에게 쉽게 풀이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며, 앞으로 개선해야하는 과제이다. 문화(재)의 근본적인 열화원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이 요구된다. 지역적인 개념을 벗어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대단히 중요한 연구사업이다. 문화는 지역간·국가간의 대화의 매체가 될 수 있으며,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문화(재)를 이용한 보존·활용·홍보는 21세기에 절대적으로 개발·발전되어야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에 산재해있는 문화재를 과학적·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존관리 기본계획과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더불어 대전지역의 문화(재) 홍보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전지역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는 보존처리뿐 아니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예방보존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문화재보존을 위한 중점사업으로는 선비문화재 재질별 보존상태 조사, 체계적인 산성정비, 선사유적지 정비, 동산문화재 보존현황조사, 건조물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자연재해 대해 응급조치 안내판 제작 등의 사업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보았다. 다음 문화재 활용을 위한 중점사업으로는 선비문화촌 조성, 무형문화재 체험촌 조성, 대전문화의 스토리텔링, 문화인의 생애촌 조성, 민속미술 경연대회, 문화재 활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활용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재 및 문화행사에 대한 지역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 홍보방안으로 문화 캐릭터 개발, 지역축제의 차별화, 지역문화 마케팅, 문화차별화 전략화, 지역브랜드화 라는 주제로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사람도 개인마다 개성이 있는 것처럼 지역도 각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대전은 1993년에 열린 대전엑스포의 인식이 여태 차지했다면, 이제 새로운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연구로 인하여 대전은 앞으로 역사분야 및 예절분야 교육에 큰 효과가 기대되며,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문화상품개발, 관광



상품개발로 인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본 연구는 세분화되어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V.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 2008,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2006, 『대전문화뿌리찾기』,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 대전중구문화원, 1996, 『대전의 민속예술』, 대전중구문화원
- 대덕문화원, 1999, 『대덕의 선비문화』, 대덕문화원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3, 『대전문화』 2호,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문화재청, 2004,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04,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07, 『문화유산 2011』, 문화재청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청, 2007, 『문화재 활용가이드북』, 문화재청
- 문화재청, 2008,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 대전광역시, 2007, 『대전의 역사와 문화』,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대전100년사』 1권,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대전100년사』 2권,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대전100년사』 3권,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대전100년사』 4권,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대전의 지도』,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지도로 본 대전』,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1993, 『한밭의 마을신앙』,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 충청북도, 2002, 『통일시대 대비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 충청북도
- 충청남도, 2008,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 충청남도
- 대전서구문화원, 1997, 『향기와 맥』, 대전서구문화원
- 강대일, 2007 『문화재환경학』, 가람
-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2005, 동방문화사
- 경주시, 2007 『명활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경주시
- 한국전통문화연구소·부여군, 2006 『부여 청마산성 종합학술조사 보고서』, 한국전통문화연구소
- 대전직할시, 1996 『대전의 성곽』, 대전직할시

